

[CONTENTS]

2017학년도 사관학교 준비전략 설명회

PART1	사관학교 입시 주요사항	
	1. 사관학교 입시의 흐름 2P
	2. 사관학교별 핵심사항 4P
	- 육사, 공사, 해사, 국간사	
	3. 사관학교별 내신 반영분석 20P

PART2	사관학교 입시 준비방법	
	1. 1차 학과시험 25P
	2. 2차 적성평가 36P

I. 사관학교 입시 주요사항

1. 사관학교 입시의 흐름

요즘은 사관학교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육군/공군/해군 사관학교는 3수생까지 도전할 수 있고 간호 사관학교는 4수생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한번 사관학교에 진학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학생은 3수를 해서라도 꼭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사관입시에 있어서 N수생의 비율은 낮지 않다.

육군/해군/공군/간호 사관학교와 경찰대는 장교 및 경찰공무원 전문 양성기관으로, 특수학교로 분류되어 수시 6회 지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대학 간 복수지원 해 놓을 수는 있으나, 사관학교는 같은 날 1차 학과 시험을 치르므로 복수 지원해둔 학교 중 한 학교에만 선택적으로 응시할 수 있다. 군장교가 꼭 되고 싶으나 성적이 안정화 되지 않은 학생들은 각 군 사관학교에 모두 지원해 두고, 1차 학과 시험 전날까지 응시할 학교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하기도 한다.

각 군 사관학교는, 해마다 시점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7월 마주막주에서 8월 첫째주 사이에 1차 학과 시험을 치른다. 1차 시험은 육군/공군/해군의 3군 입학처가 매해 번갈아가며 출제하며, 시험의 형태는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하다. 이는 사관학교 1차 시험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평가원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평가원은 이 시험이 상위 20%이상의 학생들이 응시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추어 난이도를 조정한다. 따라서 시험의 난이도는 매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보다 어려운 수준이다. 수능이 쉬워지는 추세에 있는 것처럼, 1차 시험의 난이도도 매년 조금씩 쉬워지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2016학년도 사관 1차 시험은 2015학년도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더 높은 시험이었다.

문제의 형태는 전반적으로 수능과 비슷하지만, 각 군 사관학교 교수들이 개입하는 만큼, 수능과 다른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시험에 대한 접근법이 다른 면도 있어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고난이도 문제의 접근을 위해 수능을 준비하는 것 보다, 전 영역, 심도 있는 학습이 요구된다. 고난이도 문항에 대한 접근 능력이 사관 1차 시험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1차 학과 시험에서는 각 군 사관학교별, 성별에 따라 일정 배수의 지원자가 합격을 통지 받는다. 사관학교가 1차 시험을 치루는 가장 큰 이유는 수많은 지원자들 속에서, 2차 면접 및 체력 평가의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함이다. 1차 시험에서 학과시험을 봄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능력을 지닌 지원자를 선별하여 면접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8월 중순에 합격발표가 나며, 합격자들은 빠르게는 8월 중순에서부터 늦게는 10월 초에 이르기까지 2박 3일정도의 일정으로 각 군 사관학교에 직접 입소하여 면접 및 체력검정을 받는다. 그 기간 동안 면접 및 체력 검증을 비롯하여 신체검사, 심리/인성/적성검사가 공통적으로 실시된다. 휴식시간은 충분히 주어지는 편이며, 학교 내부를 견학하기도 한다.

심리/인성/적성검사는 지원자의 심리 상태와 직업 적합성 성향 등을 점검하는 검사로 즉답해야하는 2천여 개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2시간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좋은 답을 찾아가면서 검사를 받다가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꾸민 답변을 판별해 낼 수도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너무 생각하지 말

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다. 정말 특별한 이상이 있지 않는 한 이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성의 없이 짝어서는 안 된다.

2차 적성 평가는 10월 중순에 합격발표가 나며, 합격자들은 학교에 따라 우선선발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전에 합격을 결정지어 놓기도 하고, 우선선발에 뽑히지 못한 학생들은 1, 2차 시험 성적과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중순경 발표한다. 그 후 입교 전까지 총 3차 정도에 걸쳐 추가합격자가 발표되며, 일반적으로 육군사관학교는 2차 합격자 전원에게, 공군사관학교는 최종 선발 대상자에게만, 해군사관학교는 최종 선발 대상자 중 일부 인원에게만 예비번호를 부여한다. 최종 합격을 통보받는 추가합격 대기자 번호는 해마다 차이가 있다.

사관학교의 입시 요강은 매년 조금씩 조정되어 왔지만, 특히 2015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각 군 사관학교는 입시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 왔다. 이는 군 장교 양성 기관으로써 군에 뜻을 가지고 적성이 높은 학생을 뽑아야 한다는 목표와, 군의 리더로써 활동할 인재의 지적 능력과 판단력을 보고 학생을 선발하고 싶다는 바람 사이에서 상충이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관학교 또한 대학으로서 입교생의 수준이 높은 대학이 되고 싶은 바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각 군 사관학교는 지원생 중 학업능력과 적성, 군에 대한 의지가 높은 학생을 타 대학에 빼앗기지 않고 선점해 두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1차 시험을 치룬다는 특성을 백분 활용하여 1차 시험에서 학업 능력을 우선 검증하고, 수능 없이 학생을 선발하는 비중이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즉 사관학교 입시에 있어서 일반 대학의 수시에 해당하는 요인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수능을 통한 학업능력 평가가 최소화되는 일반대학의 수시와 달리, 사관학교 입시는 1차 시험을 통해 학업능력이 철저히 검증되기 때문에 일반대학의 수시와는 양상이 다르다. 또한 각군 사관학교가 이러한 우선 선발 제도 안에서 좀 더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자 하는 요인도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각군 사관학교 지원자들은 각 학교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입시에 임해야만 한다.

2. 사관학교별 핵심사항

(출처: 각 군 사관학교 홈페이지 참조)

1)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는 군인이 꿈인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관학교다. 그만큼, 장성을 배출하는 수가 가장 많은 사관학교로 ‘군’이라는 조직에서는 성골과도 같다.

그러나 최근 파일럿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공군사관학교 지원자들이 증가하고, 해군 사관학교 역시도, 해운 항만에 대한 특수 기술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1차 컷트라인 형성에 영향을 받아왔다.

2016학년도에서는 2015학년도와 달리 경찰 대학교 1차 시험과 시험일이 다르게 정해지면서 경찰대와 의 복수지원자가 늘어나 컷트라인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나, 복수지원 생들이 대거 공군 사관학교 쪽으로 몰리면서 1차 시험 통과 컷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되었다.

육군사관학교는 이러한 지원 추세와, 그 간 발생했던 사관생도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고려하여, 단순히 성적요인 보다도 인성과 군에 대한 목표, 군에 끝까지 남아 복무할 수 있는 적응력을 두루 갖춘 사관생도 선발을 목표로 삼아 입시 제도를 변화 시켜 왔으며, 이는 입시에 있어서 2차 시험의 비중을 상향시켜가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육군사관학교 입학전형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① 군 적성 우수자 전형

1차 시험의 성적과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이 배제된 채 면접과 체력검정만으로 선발하므로, 1차시험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이 합격을 노려 볼 수 있다.

□ 2016학년도 육군사관학교 입학전형

구분		선발비율	세부내용
일반 전형	우선선발	고교학교장 추천	10% 이내 고교 학교장 추천자 중 2차 시험 상위자
		군적성	20% 이내 고교 교사 추천자 중 2차 시험 상위자
	정시선발	70% 내외	고교교사 추천자 중 1차 시험(50점), 2차 시험(250점), 내신(100점), 수능(600점)
재외국민 자녀 특별전형		5명 이내	1차 시험, 2차 시험 외국어 구두시험, 한국사시험(합/불)
총 선발인원		310명 (여 30명)	남자 : 문과 50% / 이과 50% 여자 : 문과 60% / 이과 40%

② 학교장 추천 우선 선발전형 : 최대 3번의 기회 부여

학교장 추천을 받을 경우 최초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통해 전형 기회가 부여되며, 탈락할 경우 자동으로 군 적성 전형으로 이월되어 또 다시 전형기회가 부여된다. 여기서도 탈락하게 될 경우, 또 자동으로 정시 선발로 이월된다. 즉, 학교장 추천(학교당 2명)을 받는 것이 전형 기회의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1차 시험 예비합격자 제도(예비번호 50번까지 부여)

육군사관학교는 1차 시험의 경우, 최종 합격자의 5배수(남자), 또는 6배수(여자)를 합격자로 선발한다. 즉, 남학생은 1,400명, 여학생은 180명이 1차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1차 시험의 실제 경쟁률은 5:1 미만이다. 여기다가 50명의 예비합격자 제도를 신설하여, 1차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의 결원을 충원하게 된다. 큰 차이는 없겠지만, 다소간의 커트라인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1차 학과시험 개요(2016학년도 기준)

㉠ 계열별 반영 과목

- 인문 : 국어B(내년도 국어 통합), 수학A, 영어
- 자연 : 국어A(내년도 국어 통합), 수학B, 영어
- 1차 시험의 응시 계열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응시 영역과 일치하여야 함.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선발인원 : 모집정원 기준 남자 5배수, 여자 6배수
- 선발방법 : 국어, 수학, 영어 3과목의 표준점수를 합산 후 고득점순 선발(계열별, 성별)

㉢ 1차 시험 최종성적 반영

- 최종 성적(1,000점)의 5%(50점) 반영
- 반영방법

$$\text{영점수 50점} = \frac{1}{3} \sum_{i=1}^3 (\text{개인취득표준점수} - \text{영역별최고표준점수}) \times 50\text{점}$$

④ 체력 검정 실질반영비율의 확대

육사는 해사, 공사에 비해 체력 검정을 중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합격자들의 체력검정 평균점수는 40점 내외로 추정된다. 즉, 3가지 종목 모두에서 1~2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여기에서 무려 10점 가까운 차이를 벌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체력검정의 실질반영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년과 달라진, 육사 체력 검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2016 체력검정(정시선발)의 특징]	[‘정시선발 / 학교장 추천-우선선발’ 체력검정 기준비교]		
	종 목	정시선발 합격기준	우선선발(학교장) 합격기준
- 16등급으로 배점 등급 세분화 - 불합격 종목 1개 이상 불합격 - 2종목 이상 16등급 불합격 - 1종목 16등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오래달리기	남 16급(7분38초이내)	남 9급 (6분42초이내)
		여 16급(7분28초이내)	여 9급 (6분28초이내)
	윗몸일으키기	남 16급(28개이상)	남 12급 (40개 이상)
		여 16급(14개 이상)	여 12급 (28개 이상)
	팔굽혀펴기	남 16급(15개이상)	남 12급 (27개 이상)
		여 16급(2개이상)	여 13급 (8개 이상)

□ 2차 적성 평가

㉠ 시험 종목 및 배점.

시험종목	개별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
배 점	200점/합·불	50점/합·불	합·불

- 재외국민자녀 : 외국어 구두시험(150점), 한국사시험(합·불) 추가 실시

㉡ 개별면접

구 분	평 가 내 용
가 치 관	희생봉사, 국가관, 역사관, 도덕성, 책임성, 성실성
품 성	포용력(배려), 주도력, 사회성, 인내성
지적역량	지적능력, 판단력(통찰력), 논리성, 표현력
생 활 사	리더십, 지원동기, 생활환경(가정 및 학교)
체 력	-

□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2016학년도 기준)

㉠ 계열별 반영 과목

구분	반영 과목
문과	국어B형, 영어, 수학A형, 사회탐구(2과목 자유선택)
이과	국어A형, 영어, 수학B형, 과학탐구(2과목 자유선택)

㉡ 영역별 배점

구분	영역	과목	배점	
필수	국어	A형	화법과 작문 I, 독서와 문법 I, 문학 I	170점
		B형	화법과 작문 II, 독서와 문법 II, 문학 II	
	영어	영어 I, 영어 II	170점	
	수학	A형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	170점
B형		수학 I,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선택	사회탐구 (문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총 10과목 중 2과목 자유선택	90점 (각 과목별 45점 x 2과목)	
	과학탐구 (이과)	물리 I, 물리 II, 화학 I, 화학 II,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I, 지구과학 II ※총 8과목 중 2과목 자유선택		

㉢ 환산방법 (600점 만점)

- 국어, 영어, 수학 : $170 \times (\text{학생의 표준점수} / \text{과목 전국 최고 표준점수})$
- 탐구영역 : $45 \times (\text{학생의 표준점수} / \text{과목 전국 최고 표준점수})$

2) 공군사관학교



최근 2년간, 공군사관학교 입시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우선선발 정원의 확대이다. 2015학년도 30%였던 우선선발 비율이 2016학년도에는 무려, 70%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시력 교정술이 가능한 학생의 조건부 입학을 허용하면서 공군사관학교의 합격 커트라인이 크게 올라갔는데, 이에 따라 1차 시험의 합격배수를 3.5배수까지 낮추었던 것을 2016학년도에 4배수까지의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것도 주요 변화사항이다(남학생 기준). 여학생은 8배수를 1차시험 합격자로 선발한다.

면접에서는 2015학년도 신설된 시사논술이 역사(안보)관 논술로, 명칭이 변경되어 실시되는 것 이외에는 큰 차이는 없다. 우선선발 정원이 늘어난 만큼, 1차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고, 파일럿에 대한 지속적인 인기 상승 등의 요인 때문에, 2016학년도 입시에 있어, 다른 두 사관학교보다 높은 점수대에서 1차 합격선이 결정되었다.

지난 수 년 간의 입시 결과를 보면 상위권 학생들의 공사에 대한 선호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공군 사관학교는, 이에 따라 다른 사관학교보다 성적 요인을 중심에 두고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조종장교 선발에 있어 70%가 우선 선발 되어 수능의 요인이 줄어들 것 처럼 보이지만, 우선 선발은 1차 시험에서 2등급 이내, 즉 상위 11% 이내에 든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성적 위주의 우선 선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 선발 비중이 30%까지 줄어들면서, 수능의 합격 컷 점수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① 1차 시험 선발 배수의 변경 및 남자 정책 분야 모집 비율의 축소 (20 → 10%)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해 기본적으로 최종 선발인원의 3.5배수를 1차 시험 합격자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이를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남학생은 최종 선발인원의 4배수, 여학생은 최종 선발인원의 8배수를 1차 시험 합격자로 발표한다는 것이 공군사관학교의 계획이다. 지난해 1차 시험을 합격한 학생 중, 일반 상위권 명문대로 진학한 허수 지원자들이 존재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정책 분야의 모집비율을 남자 정원의 20% 내외 → 10% 내외로 축소하고 조종 분야의 모집비율을 확대한 것은 조종사의 조기 전역과 맞물리는 부분이다. 세종대, 영남대 등에 공군장학생 과정을 신설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30대 초반의 젊은 공군 장교들이 대부분 의무연한만 채우고 전역하면서 조종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공군은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조종 자원의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우선선발 비중의 확대 (50 → 70%)

2016학년도 공군사관학교 입학전형의 가장 큰 변화는 우선선발 비율의 확대에 있다. 허수 지원자가 많은 육군사관학교에 비해 우선선발에 가장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올해 무려 70%를 우선선발로 선발한다. 이는 수능의 변별력 하락과 맞물려 수능을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고 생도를 선발하겠다는 공군사관학교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1차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선선발의 핵심이 될 수 있으며, 2차 시험의 고득점도 우선선발로 합격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 2016학년도 공군사관학교 입학전형

남자 90% 내외				여자 10% 내외			
인문계열 45% 내외		자연계열 55% 내외		인문계열 50% 내외		자연계열 50% 내외	
일반전형	조종 외 기회균형전형	일반전형	조종 외 기회균형전형	일반전형	조종 외 기회균형전형	일반전형	조종 외 기회균형전형
90% 내외	10% 내외	90% 내외	10% 내외	50% 내외	50% 내외	50% 내외	50% 내외

구 분		세부전형
일반전형 (조종)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 충족자 선발 (나안시력 양안 0.5이상)	우선선발 (수능제외)
		정시선발 (수능포함)
특별전형 (정책)	공군장병 신체검사 기준 충족자 선발 (교정시력 우안 0.7이상, 좌안 0.5이상 / 왼손잡이는 반대)	조종 외 기회균형전형
		어학우수자전형
		재외국민자녀전형
		독립유공자 (외)손·자녀전형
		국가유공자 자녀전형

□ 1차 학과시험(2016학년도 기준)

㉠ 계열별 반영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 : 국어B(내년도 국어통합), 수학A, 영어 • 자연 : 국어A(내년도 국어통합), 수학B, 영어 • 1차 시험의 응시 계열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응시 영역과 일치하여야 함.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인원 : 모집정원 기준 계열별 남자 4배수, 여자 8배수 • 선발방법 : 국어, 수학, 영어 3과목의 표준점수를 합산 후 고득점 순 선발(계열별, 성별) • 과목별 원점수 60점 미만이면서 표준점수 하위 40% 미만인 자는 불합격
㉢ 가산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시험 상위 2등급(11%) 이내인 자에게 최종성적 산출시 가산점(1~20점) 부여

□ 2차 시험 - 체력, 역사(안보)관 논술, 면접

㉠ 체력검정	<table border="1"> <tr> <td rowspan="4"> 체력검정 (합격/불합격) (30점) </td> <td>- 4개 종목 :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남자 1,500m / 여자 1,200m 달리기</td> </tr> <tr> <td>- 불합격 기준</td> </tr> <tr> <td>· 종목별 불합격 기준 해당자</td> </tr> <tr> <td>· 4개 종목 중 10등급이 3개 종목 이상인 자</td> </tr> <tr> <td></td> <td>· 총점 30점 만점에 20점 미만인 자</td> </tr> <tr> <td></td> <td>- 합격자는 취득점수를 최종전형 종합 성적에 반영</td> </tr> </table>			체력검정 (합격/불합격) (30점)	- 4개 종목 :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남자 1,500m / 여자 1,200m 달리기	- 불합격 기준	· 종목별 불합격 기준 해당자	· 4개 종목 중 10등급이 3개 종목 이상인 자		· 총점 30점 만점에 20점 미만인 자		- 합격자는 취득점수를 최종전형 종합 성적에 반영
체력검정 (합격/불합격) (30점)	- 4개 종목 :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남자 1,500m / 여자 1,200m 달리기											
	- 불합격 기준											
	· 종목별 불합격 기준 해당자											
	· 4개 종목 중 10등급이 3개 종목 이상인 자											
	· 총점 30점 만점에 20점 미만인 자											
	- 합격자는 취득점수를 최종전형 종합 성적에 반영											
㉡ 역사(안보)관 논술	<p>한국사 및 국가안보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 중요한 이슈를 기승전결 또는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된 완성형 논제를 제시하여 수험생의 가치관·안보관·역사관을 평가(1문제, 30분 이내로 평가, 10점)</p>											
㉢ 면접	<table border="1"> <thead> <tr> <th>1분과 (30점)</th> <th>2분과 (25점)</th> <th>3분과 (15점)</th> <th>4분과 (적·부)</th> </tr> </thead> <tbody> <tr> <td>성 격, 가치관, 희생정신</td> <td>학교생활, 가정·성장환경, 자기소개서, 지원동기</td> <td>용모·태도, 역사관(안보)관 집단토론</td> <td>개인의식, 공동의식</td> </tr> </tbody> </table>			1분과 (30점)	2분과 (25점)	3분과 (15점)	4분과 (적·부)	성 격, 가치관, 희생정신	학교생활, 가정·성장환경,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용모·태도, 역사관(안보)관 집단토론	개인의식, 공동의식	
1분과 (30점)	2분과 (25점)	3분과 (15점)	4분과 (적·부)									
성 격, 가치관, 희생정신	학교생활, 가정·성장환경,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용모·태도, 역사관(안보)관 집단토론	개인의식, 공동의식									

□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2016학년도 기준)

㉠ 점수 반영 : 국어·영어·수학 표준점수, 탐구영역 표준점수 1/2 반영

영역 / 유형		과 목	배 점
총 점			700점
국어	B형(인문)	화법과 작문 II, 독서와 문법 II, 문학 II	200점
	A형(자연)	화법과 작문 I, 독서와 문법 I, 문학 I	
영어	공통(인문, 자연)	영어 I, 영어 II,	200점
수학	A형(인문)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	200점
	B형(자연)	수학 I·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탐구	사회탐구(인문)	한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총 10과목 중 2과목 자유선택	100점
	과학탐구(자연)	물리 I·II, 화학 I·II, 생명과학 I·II, 지구과학 I·II ※ 총 8과목 중 2과목 자유선택 (동일과목 I·II도 2과목 인정)	

㉡ 인문계열 수험생은 국어B/영어/수학A/사회탐구 유형을 응시해야 하며, 자연계열 수험생은 국어A/영어/수학B/과학탐구 유형을 응시해야 함.

㉢ 원서접수 시 지원계열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계열은 일치해야 함.

3)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는 2015학년도에 특별전형, 즉 고교장 추천에 의한 우선선발전형을 사관학교 중 처음으로 도입한 학교이다. 2016학년도의 해군사관학교 입시의 큰 틀은 예년과 같이 유지하였으나, 특별전형 비중을 모집정원의 10% 이내 → 20% 이내로 확대하여 입시요강에 변화를 주었다. 특별전형은 학교별로 학교장이 해군장교로서의 잠재역량이 높은 2명(2015학년도 1명)을 해군사관학교에 추천하여, 추천을 받은 학생끼리 면접 등 2차 시험을 중심으로 경쟁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전에 우선 선발하는 전형이다. 특별전형의 확대는 각 사관학교의 면접강화 움직임의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별 전형을 통해 선발된 사관생도들의 학업과 사관 적응도가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2017학년도 전형에서 이를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할 수도 있으며, 해군사관학교도 육군 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군 적성을 우선하여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2016학년도 사관 1차 시험에서 해군 사관학교는 1차 시험 통과 컷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제는 해군에 대한 선호도를 가진 학생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해군 사관학교의 입시에서의 위상이 상승한 것이 사실이다.

① 특별전형 선발 비중의 확대 (10 → 20%)

2016학년도 해군사관학교 입학전형의 가장 큰 변화는 우선선발 비율의 확대에 있다. 지난해 특별전형을 최초로 도입하여 성적과 인성을 두루 겸비한 인재 확보에 성공했다는 성과를 얻은 해군사관학교는 올해 특별전형의 비중을 확대하는 선택을 하였다. 이는 수능의 변별력 하락과 맞물려 수능을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고 생도를 선발하겠다는 사관학교 공통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학교장 추천을 받게 될 경우, 1차 선발 불합격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되어 2번의 전형기회가 부여된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사관학교 입학관리실에서는 지난 해 500여개 학교에서만 추천이 있었으나, 학교별 홍보활동을 확대하여 1,000개 학교에서 올해 추천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 2016학년도 해군사관학교 입학전형

구분	선발비율	세부내용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 필수)	20%	1차 시험(200점), 서류평가(200점), 2차 시험(600점), 한국사 가산점(10점)
일반전형	80%	수능(750점), 학생부(100점), 2차 시험(150점), 1차 시험 가산점(10점), 한국사 가산점(10점)
총 선발인원	170명	남자 90% (문과 45%, 이과 55%) 여자 10% (문과 70%, 이과 30%)

□ 1차 학과시험(2016학년도 기준)

<p>㉠ 계열별 반영 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 : 국어B(내년도 통합), 수학A, 영어 • 자연 : 국어A(내년도 통합), 수학B, 영어 • 1차 시험의 응시 계열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응시 영역과 일치 하여야 함. <p>㉡ 1차 시험 합격자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인원의 성별 및 계열별 남자 4배수, 여자 8배수 선발 • 선발방법 : 국어, 수학, 영어 3과목의 표준점수를 합산 후 고득점 순 선발(계열별, 성별) <p>㉢ 가산점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시험 상위 10% 이내인 자에게 최종성적 산출시 가산점 차등 부여
--

□ 2차 시험 - 체력, 면접

㉠ 체력검정(40점)

가. 4개 종목 :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1500m(남)/ 1200m(여)

나. 총 40점 만점에 20점미만 획득자

※ 특별전형은 총 80점 만점에 40점미만

다. 오래달리기 11등급 이하 불합격, 남자 7' 55" 이상, 여자 7' 37" 이상

라. 오래달기 외 2종목 이상 최하등급자는 합격 보류, 선발위원회에서 합격 여부 판정

※ 체력검정 당일 신체 이상으로 검정이 불가능한 수험생은 군의관 개별 진료 후

군의관 소견에 따라 다음날 체력검정 실시 가능

㉡ 면접전형

구분	배점	평가영역
국가관·안보관·역사관	25	○ 국가관·역사관 - 대한민국의 정통성/건국과정에 대한 이해 - 한국사에 대한 인식 ○ 안보관 - 한·미 동맹/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 - 북한의 6·25 전쟁 등 대남도발 사례에 대한 이해
군인기본자세	20	개인용모, 발성/발음, 신체균형/외적자세
주제토론	15	표현력 및 논리성, 창의성 및 지식, 토론자세 및 대화태도
적응력	25	목적의식, 리더십, 학교생활, 입교의지
종합판정	25	순발력과 창의력, 인성 및 가치관, 표현능력과 개성
계	110	특별전형에서는 600점으로 반영

□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2016학년도 기준)

㉠ 점수 반영 : 국어·영어·수학 표준점수, 탐구영역 표준점수 1/2 반영

영역 / 유형		과 목	배 점
총 점			750점
국어	B형(인문)	화법과 작문 II, 독서와 문법 II, 문학 II	200점
	A형(자연)	화법과 작문 I, 독서와 문법 I, 문학 I	
영어	인문, 자연	영어 I, 영어 II	250점
수학	A형(인문)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	200점
	B형(자연)	수학 I·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탐구	사회탐구(인문)	한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총 10과목 중 2과목 자유선택	100점
	과학탐구(자연)	물리 I·II, 화학 I·II, 생명과학 I·II, 지구과학 I·II ※ 총 8과목 중 2과목 자유선택	

㉡ 인문계열 수험생은 국어B/영어/수학A/사회탐구(2과목 자유선택) 유형을 응시해야 하며, 자연계열 수험생은 국어A/영어/수학B/과학탐구(2과목 자유선택) 유형을 응시해야 함.

㉢ 원서접수 시 지원계열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계열은 일치해야 함.

4) 간호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지난 2년간의 사관학교 입시의 변화 속에서, 예외적인 학교로 남아 있었다. 각 사관 학교들이 우선선발의 도입을 통해 자신만의 특성을 내세우려 한 반면, 간호사관학교는 자연계 지원생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식을 변화 시킨 이 후, 이렇다할 입시에서의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간호사관학교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자연계 학생들에게 수학 B형 15%, 과학탐구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문·이과를 구분하여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계 지원생들이 충분한 가산점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 전략에 따라서는 국어, 수학A, 영어, 과학탐구의 조합도 가능하다.

비교적 2차 시험의 비중이 낮고, 수능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간호사관학교의 또 다른 특징이다. 하지만, 사관학교의 전반적인 입시 추이에 따라, 2017학년도 입시에서 다른 사관학교들과 같이, 우선선발의 요소를 도입할지의 여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간호사관학교 최종선발 개요

구 분	2차 시험		대학수학 능력시험	고교내신		계	비 고
	체력검정	면 접		교과	비교과		
점수	30	70	700	90	10	900	- 1차 시험 상위5%:1~5점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1~4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세부내용

- 적용등급/가산점 : 중급4급/1점, 중급3점/2점, 고급2급/3점, 고급1급/4점
- 인증서 제출기한/유효기간 : 2015.11.13.(금)(우체국 소인 기준)/미적용

□ 1차시험 (2016학년도 기준)

㉠ 반영방법

과목	유형	출제범위	배점
국어	A형	화법과 작문I, 독서와 문학I, 문학I	200점
수학	A형	수학I, 미적분과 통계 기본	200점
영어		영어I, 영어II (듣기 제외)	200점
계			600점

㉡ 가산점

구분	1%	2%	3%	4%	5%
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2차시험 - 체력, 면접

1일차 : 등록, 인성검사·역사관 약술(면접 시 활용)
 2일차 : 신체검사(합격·불합격), 체력검정(30점/합격·불합격)
 3일차 : 면접(70점/합격·불합격)

구 분	내 용	배 점
제 1분과	내적영역	70
제 2분과	대인영역	
제 3분과	외적영역 / 역사관 평가	

※각 분과별 평가결과 종합하여 합격·불합격 판정 취득점수 최종선발에 반영

□ 간호사관학교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개요(2016학년도 기준)

구분	영역		과목	배점	
필수	국어	A형	화법과 작문I, 독서와 문법I, 문학I	200점	국어B : 5% 수학B : 15% 가산점 부여 (내년 국어는 통합)
		B형	화법과 작문II, 독서와 문법II, 문학II		
	수학	A형	수학I, 미적분과 통계 기본	200점	
		B형	수학I, 수학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영어		영어I, 영어II	200점	
선택	사회탐구 (인문)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사, 한국지리, 경제,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정치, 사회문화 * 총 10과목 중 2과목 자유선택	100점 (과목당 50점)	과학탐구 10% 가산점부여
	과학탐구 (자연)		물리I, 물리II, 화학I, 화학II, 생명과학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 지구과학II * 총 8과목 중 2과목 자유선택		

※ 이수계열 미구분/ 표준점수 반영

3. 사관학교별 내신반영 분석

1) 육군사관학교 내신반영 분석

2016학년도 제76기 육군사관학교 생도모집 전형은, 크게 우선선발(학교장추천, 군적성)과 정시선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선발에는 2차 시험 성적(면접, 체력, 신체검사 합불)만이 반영된다. 즉, 내신이 반영되는 전형은 전체 정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정시선발’이다.

정시선발은 1차,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세부적으로는 1차 시험(50점), 2차 시험(250점), 내신(100점), 수능(600점)이다. 내신은 1,000점 만점에서 불과 100점이 반영되고 있다. 이중 아무래도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럼, 내신의 실제 반영비율이 어떠할까?

※ 학년별 비율 : 1학년 25%, 2학년 35%, 3학년 1학기 40%)

석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석차등급점수	9	8	7	6	5	4	3	2	1

일단, 등급별로는 위와 같이 배점이 주어진다.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사탐(문과) 또는 과탐(이과) 이수단위별 성적을 평균 내어 등급을 산출한 후, 위의 배점을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 실제 내신 성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최종선발에서 내신 교과 성적이 1,00점 만점에 90점이 반영된다.

- 9.00~8.76 = 90.0점 (실제 교과 성적 평균 1등급)
- 8.76~8.44 = 89.5점
- 8.44~8.04 = 89.0점 (실제 교과 성적 평균 2등급 수준)
- 8.04~7.56 = 88.5점
- 7.56~7.00 = 88.0점 (실제 교과 성적 평균 3등급 수준)
- 7.00~6.28 = 87.5점
- 6.28~5.48 = 87.0점 (실제 교과 성적 평균 4등급 수준)
- 5.48~4.52 = 86.5점
- 4.52~3.72 = 86.0점
- 3.72~3.00 = 85.5점 (실제 교과 성적 평균 7등급 수준)
- 3.00~2.44 = 85.0점
- 2.44~1.96 = 84.5점
- 1.96~1.56 = 84.0점
- 1.56~1.24 = 83.5점
- 1.24~1.00 = 83.0점 (실제 교과 성적 평균 9등급)

종합하면 1등급과 9등급의 점수차는 90점이 아니라, 7점에 불과하다. 평균적으로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 중 내신이 좋지 못한 학생들의 수준은 대략 4~5등급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학생들이 내신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all 1등급 학생에 비해 깎이는 점수는 3~4점에 불과하다. 수능이 반영될 때 400점이 아니라 600점으로 환산되어 반영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수능에서 3점짜리 1~2문제만 더 맞춰주면 극복이 가능한 점수다. 내신 100점 중 나머지 10점은 출결이다. 결석일수가 2일 이내이면, 10점 만점이다.

2) 공군사관학교 내신반영 분석

공사의 입학전형은 육사, 해사와 비교하여 복잡하다. 그러나 가장 중심이 되는 전형은 바로 조종이다. 조종(일반전형)은 우선선발과 정시선발로 구분된다. 우선선발로 70%를, 정시선발로 30%를 선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 공군사관학교 우선선발 반영점수

전형요소	반영점수	반영과목	반영방법
1차 시험 가산점	20점	-	취득 가산점
2차 시험	110점	역사(안보)관 논술(10점), 체력(30점), 면접(70점)	취득점수
학교생활기록부	100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 이수과목	등급의 점수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점	중급이상	취득점수*0.2
합 계		250점	

□ 공군사관학교 정시선발 반영점수

전형요소	반영점수	반영과목	반영방법
1차 시험 가산점	20점	-	취득 가산점
2차 시험	110점	역사(안보)관 논술(10점), 체력(30점), 면접(70점)	취득점수
학교생활기록부	100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 이수과목	등급의 점수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점	중급이상	취득점수*0.2
대학수학능력시험	700점	국, 수, 영 각 200점	표준점수
		탐구 2과목 100점	표준점수 1/2
합 계		950점	

위의 표를 살펴보면, 총점은 크게 차이가 나지만 학생부는 반영 점수가 100점으로 동일하다. 즉 우선선발에서는 학생부 내신 성적 비중이 크고, 정시선발에서는 그 비중이 비교적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내신 등급별 점수

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	98	96	94	92	90	88	86	84

1등급과 9등급의 차이는 16점이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지원하면서 내신이 좋지 못한 학생들이 4~5등급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1등급과 비교하여 6~8점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육사/해사와 비교하여 실질반영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선선발로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3등급대의 내신 성적을 최소한 기록하는 것이 유리하며, 3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1차 시험 성적 최상위권을 기록하여 1차 시험 가산점으로 또는 2차 시험(면접) 성적으로 불리함을 극복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1차 시험 대비 못지않게 2차 시험 대비가 중요한 이유이다. 그렇다고 공군사관학교에 내신 학생부 1등급인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3) 해군사관학교 내신반영 분석

해군사관학교도 전형이 크게,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구분된다. 특별전형은 학교장추천전형으로 전체입학 정원(170명)의 20%를, 일반전형으로는 80%를 뽑고 있다.

- * 특별전형 : 1차 시험 합격 후, 2차시험성적+서류평가+1차시험성적+한국사가산점
- * 일반전형 : 1, 2차 시험 합격 후, 수능+학생부+2차시험+1차시험가산점+한국사가산점

이 중,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전형은 일반전형이다. 일반전형은 1000점 만점에 1차 시험 가산점과 한국사가산점이 각 10점씩 추가로 부여되는 형태다. 1000점 중 수능이 750점, 학생부 100점, 2차 시험 150점을 차지하고 있다. 내신 성적은 앞서 육사와 마찬가지로 100점 중 10점이 출결, 90점이 교과 성적이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로, 교과 90점인 것이다. 교과 성적은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1학기 40%의 비율로 이수단위별 등급을 산출하여 아래의 자체 점수표로 환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내신 등급별 점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백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점수	90	89.5	89	88.5	88	87	85	81	75

육사보다는 1~9등급 간 점수차는 큰 편이다. 육사가 불과 7점차였다면 해사는 15점차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지만, 7등급까지는 불과 5점차로 육사와 동일하다. 즉, 평균 3등급인 학생은 1등급인 학생과 1000점 만점에서 불과 1점차이만 보일 뿐이다. 4등급인 경우에도 1등급과 1.5점, 5등급인 경우에도 1등급과 2점차 밖에는 나지 않는다. 내신 성적 때문에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이다.

II. 사관 입시 준비 방법

1. 1차 학과시험

1) 국어

▶ 사관학교 1차시험의 최근 트렌드

- 큰 틀에서 수능과 유사하게 변화 (평가원 수능 출제위원 + 사관학교 교수진)

구분	2014학년도 이전	2014학년도 이후
대상	문·이과 공통	문과 - B형, 이과 - A형으로 분리 출제
문항수	40문항	45문항
시험시간	60분	80분
문항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기, 어휘, 어법 (4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법 (1~5번) ● 작문 (6~9번) ● 문법 - 어휘포함 (10~14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문학 5개 지문 (19~20문항) - / 사회/ 과학/ 언어/ 예술 지문 출제 - 기술지문 미출제 ※ 과학과 기술 지문 경계가 다소 모호한 것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문학 4개 지문 (15~30번) -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지문 출제 - 언어·기술지문 미출제 ※ 과학과 기술 지문 경계가 다소 모호한 것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4개 지문 (16~17문항) - 현대시 : 3작품 한 세트 - 현대소설 - 고전소설 - 고전시가+수필 ※ 2009학년도 고전시가 3편 / 수필 2편 ※ 희곡은 2006학년도 이후 1편 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4개 지문 (31~45번) - 현대시 - 현대소설 - 고전소설 - 고전시가 - 수필

▶ 2016학년도 사관학교 1차시험 국어영역의 특징

- 내년도 통합국어를 대비한 변화가 있었음(A형 국어 : 현대시 2편 출제)
- 전반적으로 수능보다는 높은 난이도를 유지하려고 한 흔적이 존재함.
- 문제가 어려운 것 보다는 독해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시험으로 2년 연속 출제됨.
- 예년에 비해 EBS 연계도는 줄어들어, 화법, 작문, 문법, 비문학에서는 연계도를 느끼기 어려웠으며, 문학의 경우에도 A/B형 고전시가와 A형 고전소설을 제외하고는 비연계 작품으로 출제되었음.

▶ 2016학년도 사관학교 1차시험 국어B 세부 출제현황

영역	세부 출제지문		EBS 연계도
화법	협상지문, 대화지문(공통)		EBS 연계도 무의미
작문	개요의 적절성, 작문과제에 따른 글쓰기		EBS 연계도 무의미
문법	한글맞춤법(용언의 활용), 높임법, 표준발음법(끝소리규칙,첨가), 문장표현, 중세국어		EBS 연계도 무의미 개념을 정확히 숙지해야 함.
비문학	인문	미적판단(공통)	EBS 연계도 무의미
	사회	정의론	
	경제	정보재	
	과학	4차원 시공간	
문학	현대시	백석 '노루-함주시초2' 신경림 '산에 대하여'	비연계
	고전소설	홍세대 '김영철전'	비연계
	고전시가	이항 '도산십이곡' 황진이 시조 정철 '속미인곡'	'도산십이곡' 연계(수능특강) 정철 '사미인곡'(A형 인터넷수능)
	현대소설	이청준 축제(공통)	비연계
	극, 수필	-	미출제

▶ 2016학년도 사관학교 1차시험 국어A 세부 출제현황

영역	세부 출제지문		EBS 연계도
화법	강연지문, 대화지문(공통)		EBS 연계도 무의미
작문	회의내용→글쓰기, 작문과제→글쓰기		EBS 연계도 무의미
문법	음운변동, 의존명사, 겹문장, 문장표현, 사전		EBS 연계도 무의미 개념을 정확히 숙지해야 함.
비문학	기술	입체음향기술	EBS 연계도 무의미
	인문	미적판단(공통)	
	사회	기본권	
	과학	양자물리학	
문학	현대시	김소월 '나무리별 노래' 이용악 '하늘만 곱단다'	비연계
	고전소설	작자미상 '심청전'	연계 (EBS 인터넷수능)
	고전시가	안조원 '만언사'	연계 (B형 수능특강)
	현대소설	이청준 축제(공통)	비연계
	극, 수필	-	미출제

▶ 수능과 사관학교 1차시험의 차이점

● 문학

- 사관학교의 특성상, 건전한 국가관이나 안보관과 관련한 작품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음.
- (현대문학, 고전문학 공통) 충, 효, 평화, 민족 공동체적 이상, 가족의 중요성 등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수능에 비해 높은 출제빈도를 보임
- (현대문학) 특히, 현대문학의 경우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거나, 전쟁 혹은 전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이 많이 출제되었음
- (고전문학) 고전작품의 경우에도, 유교적 가치관(충, 효)이나 나라에 대한 걱정과 국난 극복 등을 주제로 다루는 영웅군담소설, 풍자소설 등이 자주 출제되었음.

예) 2016 A형 현대문학 : 김소월 '나무리별 노래', 이용악 '하늘만 곱구나', 이청준 '축제'
고전문학 : 안조원 '만언사', 작자미상 '심청전'

예) 2016 B형 현대문학 : 백석 '노루-함주시초2', 신경림 '산에 대하여', 이청준 '축제'
고전문학 : 정철 '속미인곡', 이황 '도산십이곡', 홍세태 '김영철전'

● 독서(비문학)

- 전반적으로 수능의 경향과 가장 유사한 영역으로 볼 수 있음.
- 지문의 난이도 : 수능보다 다소 높음 (독해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됨)
- 문항의 구성 : 최근 수능에서 출제비중이 높은 어휘문제가 없고, 대신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보기> 문항이 올해의 경우, A형 4지문 6문항, B형 5지문 5문항 등 비중이 높음.

● 화법, 작문, 문법

- 화법과 작문영역에서는 수능과 큰 차이가 없음.
- 문법 : 개념의 시험범위는 수능과 유사하나, 문제가 전체적으로 불친절함. 즉, <보기>를 통해 상당한 부분의 개념을 제시해주는 수능과 달리, 사관학교에서는 개념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음.

▶ [참고자료] 통합형 사관학교 1차시험 국어 출제지문 현황 (~2013)

장르 연도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수필·극문학
2013	오세영, 등산 박재삼, 흥부부부상 윤동주, 간	황순원, 나무들 비탈에 서다	서거정, 독좌 최현, 명월음	이정균, 홍무왕연의	김정환, 석류일기
2012	김수영, 파발가에서 김광규, 대장간의 유희 김기택, 다리 저는 사람	채만식, 논이야기	김시습, 소양정 조위, 만분가	미상, 최고운전	이식, 왜송설
2011	김광규, 노신 천양희, 마음의 수수발 박남준, 흰 부추꽃으로	황석영, 아우를 위하여	박인로, 자경가 신흙, 감사	미상, 옥단춘전	정약용, 득월당기
2010	박두진, 청산도 정희성, 열은 강을 건너며 신석정, 전아사	최윤, 푸른 기차	이규보, 미인원 안조환, 만연사	미상, 수저옥란빙	이원, 술지부
2009	정지용, 유리창 2 정진규, 들판의 비인 집이로다 이건청, 하류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미상, 정석가 문충, 오관산요 미상, 사설시조	미상, 홍보가	장유, 곡목설 이태준, 수목
2008	최승호, 북어 유하, 체제에 관하여 고진하, 나무와 기계의 마음	송기숙, 개는 왜 짖는가	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 윤선도, 어부사시사	미상, 김씨열행록	이양하, 신록예찬
2007	정호승, 폭풍 김춘수, 분수 이형기, 폭포	채만식, 맹순사		미상, 적성의전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2006	이육사, 자야곡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전상국, 동행	두보, 추흥	미상, 이춘풍전	김용준, 강희자전과 감투 김진섭, 청빈예찬

▶ 사관학교 1차시험 국어 학습방향

- 화법, 작문 : 수능수준에서 학습하되, 사관학교 기출문제 꼼꼼히 분석
- 문법 : 사관학교 1차시험에 맞는 문법 공부 필요 ⇨ 국신T 패턴종합국어 문법편
- 문학 : 수능수준에서 학습하되, 사관학교 특성에 맞는 문학 시각 훈련 ⇨ 국신T 패턴종합국어 문학편
- 독서 : 난이도 높은 비문학 지문학습이 필요 ⇨ 지속적인 훈련

[사관학교 국어] 국신T 신한중(서강대 국문과)

- * 전 노량진 이투스 마감강사
- * 인터넷강의 - 오르비클래스 사관국어 인터넷강의 : <http://class.orbi.kr/class/609/>

[사관학교 국어] 국환T 김규환(고려대학교 대학원)]

- * 전 세일학원, 메가스터디

2) 수학

① 2017 수능 - 교육과정 개편 내용

구분	변경	2016년	2017년 고3 적용	수능 출제 범위 / 문항수	
A형	나형 (문과)	고등수학(상),(하) 수학 I 미적분과통계기본	수학1,수학2 미적분1 확률과통계	수학2 미적분1 확률과통계	10문항 10문항 10문항
B형	가형 (이과)	고등수학(상),(하) 수학 I 수학 II 적분과통계 기하와벡터	수학1,수학2 미적분1 미적분2 확률과통계 기하와벡터	미적분2 확률과통계 기하와벡터	10문항 10문항 10문항

② 경찰대 / 사관학교 1차 시험 수학 출제 범위

구분	문항수	시간	배점 / 문항수			출제 범위 (예상)
경찰대학	25문항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80분	3점	4점	5점	수학1,수학2 + 수학 나형 범위
			5문항	15문항	5문항	
사관학교	30문항 객관식 21문항 주관식 9문항	100분	2점	3점	4점	인문 : 수능 수학 나형 범위 자연 : 수능 수학 가형 범위
			3문항	14문항	13문항	

- 국군간호사관학교 수학시험은 사관학교 수학 나형과 동일
- 사관학교는 표준점수(200점 만점)로 변환되어 반영

③ 최근 출제 경향 및 난이도

구 분	출제 경향 (전년비교 예상)	난 이 도
경찰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1 수학 내용의 심화 문제 출제 (수능과 다른점) 고도의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 일부 출제 복잡한 계산 문제 일부 출제 단원과 단원이 연계된 문제 다수 출제 과목별 출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1, 수학2 : 20% (5~7 문항) - 미적분1 : 40% (8~10문항) - 확률과통계 : 40% (8~10문항) 	<p>수능보다 많이 어려움 (수능1등급도 별도의 준비 없으면 탈락함)</p>
사관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식적으로는 수능과 동일하게 출제 내용적으로는 중간중간과 끝에 배치된 최고난이도 문제로 인한 시간 부족과 이에 따른 심한 압박감으로 실력 발휘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 (최고 난이도 문제 : 2~3 문항) - 사관학교 (최고 난이도 문제 : 6~7 문항) 	<p>수능보다 다소 어려움 (수능 90점 수준의 학생도 사관1차 시험에서 80점 넘기기가 어려움)</p>

④ 사관학교 1차 시험 대비 수학 공부법 / 실전의 마음가짐

- ㉠ 수능 수학 실력 향상이 최우선
 - 수학 개념서와 문제 유형서 반복 학습
 - 평가원 기출문제 (수능 / 모의고사) 정리
- ㉡ 심화 개념 정리 (개념 정리 노트 활용) 및 심화 문제 연습
 - 경찰대 준비생의 경우 고1 과정의 심화 개념 / 문제 반드시 풀어봐야 함
- ㉢ 사관학교 기출문제 분석
- ㉣ 1차 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연습
- ㉤ 오답 노트를 활용한 반복 학습 (오답 유형별-개념 부족, 단원간 연계 문제, 계산 실수)

★ “나만 어렵냐 너도 어렵다. 난 8892전략이다.” ★

- 수험생들의 실제 경험을 들어보면 수능모의고사 유형과 달리 사관1차 수학에서는 중간중간에 최고난이도로 느껴지는 문제들이 나와서 멘붕 상태에 빠져서 이후에 나오는 쉬운 문제도 틀린 경우가 많았다.
- 전쟁 승리를 위하여 모든 전투를 다 이겨야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실제 1차 시험에서 순서대로 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2~3문제를 일단 넘기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 풀고 다시 앞으로 와서 편한 마음으로 문제를 다시 분석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능력을 길러야 한다.

⑤ 실패하는 수험생들의 수학에 관한 오해

㉠ 수능 수학과 사관학교 수학은 다르다?

과거에는 분명히 수능 수학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사관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수능 수학 유형으로 출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관학교의 경우에는 수능 수학보다 거의 유사하지만 최고난이도의 문제가 수능보다 2~3배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수능 수학 대비를 확실하게 하면서 사관학교의 출제 스타일에 맞는 1차 시험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 개념정리는 잘 되어 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단지 개념 정리가 잘 되어있다고 착각할 뿐이다. 개념의 이해는 단순한 공식의 암기가 아니다. 공식의 기본개념과 심화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것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공식을 외워서 문제에 단순히 대입하는 공부법으로는 1차 시험에서 2점, 3점 문제는 풀어도 당락을 좌우하는 4점짜리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 많은 문제풀이를 해야 성적이 오른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다. 개념과 공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야 한다. 또 문제를 해결하는 2~3가지 방법 중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풀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본인의 수준에서 좋은 문제라고 판단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고, 머리에 든 게 있어야 응용력이 생기는 법이다.

㉣ 문제의 양보다는 질이 우선이다?

양과 질은 둘 다 중요하다. 하지만 상위권과 중하위권 학생은 각각 개념 공부와 실전 문제 풀이 과정이 출발전부터 다르다. 상위권은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문제를 풀면서 약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하고 중하위권은 개념부터 다지면서 기본 문제는 양으로 승부하면서 기본기를 다진 후 고난이도 문제에 도전해야 된다.

㉤ 중학교 도형부분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가?

경찰대와는 달리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굳이 수학1,2(=고등수학 상,하)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1차 시험에 필요한 정도의 내용은 학원 수업시간에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⑥ 사관학교 합격생들의 수학 공부법

㉠ 개념 정리

개념과 공식을 암기하고 있더라도 문제에 적용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개념의 다양한 표현방법과 적용까지 하나로 연결시켜 원리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한다.(개념 정리 노트 필요)

㉡ 문제 풀이

문제 유형서를 반복적으로 풀어본 후 평가원 기출문제를 학습한다. 심화 개념과 심화 문제를 연습한 후 1차 시험 기출문제를 정리한다. 1차 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는 시험 4~6주전부터 매주 실시한다.

㉢ 개별 Clinic 프로그램 (오답분석 ⇒ 유사문제풀이 ⇒ 취약유형극복)

만약 수학 시험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똑같이 70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이 학생들이 틀린 문제도 모두 같을까?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약점을 보완해야 될까?

매쓰홀릭

Before

⇒

After

3.3.1 시그마의 정의와 성질 개념동영상	3 등급 2 등급		3.3.1 시그마의 정의와 성질 개념동영상	3 등급 2 등급	
3.3.2 여러 가지 수열의 합 개념동영상	3 등급 2 등급		3.3.2 여러 가지 수열의 합 개념동영상	3 등급 2 등급	
3.3.3 망원급수 개념동영상	3 등급 2 등급		3.3.3 망원급수 개념동영상	3 등급 2 등급	
3.3.4 멱급수와 균수열 개념동영상	2 등급		3.3.4 멱급수와 균수열 개념동영상	2 등급	

[사관학교 수학] 수신T 신언철(서울대학교)

* 전 대성학원

[사관학교 수학] 수도T 도회권(서울대학교)

* 전 종로학원, 현 메가스터디

3) 영어

(1) 사관영어와 수능영어의 문항비교

* **사관시험 문항구성** (총45문항중 3점짜리 10문항, 2점짜리 35문항, 100점 만점/ 시험시간 70분)

- 1) 대화(dialogue)지문 : 6문항
- 2) 어법 : 4문항
- 3) 어휘 : 3문항
- 4) 독해 : 32문항 (그중, 빈칸추론 5문항, 장문독해 8문항(4개지문, 빈칸추론3문항포함) ---빈칸 추론 유형은 결국 총 8문항으로 전년도에 비해 2문항 증가

* **수능시험 문항구성** (총45문항중 3점짜리 10문항, 2점짜리 35문항, 100점 만점/ 시험시간 70분)

- 1) Listening : 17문항
- 2) 어법 : 1문항
- 3) 어휘 : 1문항
- 4) 독해 : 26문항 (그중, 빈칸추론 4문항, 장문독해 5문항(2개지문, 빈칸추론1문항포함))

(2) 출제경향

위 문항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사관학교 시험만의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대화(dialogue) 지문 문제가 6개 나온다. 일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의 내용이 나와서 어렵지 않으나 가끔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구어체 표현이 나와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런 유형에 약하다면 평소에 듣기대본을 읽어보고 표현 습득과 대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자신 있는 학생들은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문제들은 수능영어와 문제유형 측면에서 유사하다. 약간의 차이를 언급하면, 글의 시사하는 바를 묻는 유형이 사관 시험에 있다. 총 45문항 중에 4개가 어법문제이다. 어법문제의 비중이 큰 썬이다. 어법문제의 난이도는 수능과 비교해서 약간 어렵거나 비슷하다. 단지 문제 개수가 많다보니 평소에 별도로 비중 있게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 어휘 문제는 3개로, 따로 어휘 관련 연습문제를 풀 필요는 없고 평소에 독해실력을 키워서 내용흐름을 잘 파악하면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이다. 물론 어휘실력이 모자라면 어렵겠지만 평소 독해공부 할 때 습득하는 어휘로 대비 가능하다. (가끔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도 있다) 요는, 어휘 문제는 독해문제라는 것이다. 다음은 빈칸 추론 문제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금년도는 빈칸 추론 유형 문제 개수가 전에 비해 늘었다 장문 독해 지문에서 빈칸 유형(3문항)이 포함되어 나오고 빈칸 유형 특유의 높은 난이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빈칸 유형을 평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사관 시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장문 독해유형은, 지문 길이는 특별히 길지는 않지만 지문 개수가 4개라는 점이 시험 시간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부담된다. 사관 시험 성공 여부는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45문항을 70분 안에 다 풀어야하는 속도 또한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에 배치되는 장문 독해 4개를 빠르고도 정확히 푸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관영어는 문제의 난이도 측면에서 수능보다 어렵고 지문에 사용된 어휘 수준 역시 그러하다. 앞서서도 언급한대로 어법/ 어휘 문제 유형과 빈칸추론유형이 수능보다 비중이 크고, 장문독해 지문 개수가 수능보다 많다는 것이 시간 관리적인 측면에서 수능 영어 보다 어려움을 준다.

(3) 학습법

대부분의 문제는 독해문제인데, **독해공부**는 둘로 나뉘어서 공부하는 게 좋다. 정독공부(intensive study)와 많은 문제 풀이공부(extensive study)를 말한다. 정독 공부(intensive study)는 정확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지문의 단어, 문장구조, 내용 이해 등을 꼼꼼히 따져 공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문교재 혹은 문제수가 많지 않지만, **깊이 있는 독해문제**가 있는 문제집을 정독공부의 교재로 삼을 것을 추천한다. 또는 평소 **영자 신문**의 기사나 사설 내용을 읽으면서 어휘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주제의 글에 노출되는 것도 훌륭한 독해 공부 방법일 수 있다. 다음은 문제 풀이 공부(extensive study)로서, 많은 문제가 있는 문제집을 선정하여 풀고 난 뒤 틀린 문제만 다시 점검하는 정도로 공부하면 된다. 문제 풀이 공부할 때 단어를 중간 중간에 찾을 필요는 없고 가능한 한 시험상황과 유사하게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해서 건전한 문제풀이 “요령”을 습득해야 한다(특히 사관시험의 문항수와 시험 시간을 고려 할 때). 독해공부는 물론 **어휘 공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독공부 할 때 습득하는 단어와 서점에 나와 있는 단어 교재(수능영어를 위한 단어집 중에서 비교적 수준 높은 단어 포함한 교재)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어법 공부**와 관련해서 기초가 부족한 학생은 문법 설명과 그 문법과 관련된 구문독해가 함께 나와 있는 교재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초가 돼 있는 학생은 어법만 따로 나와 있는 수능 교재로 공부해도 무방하다.(정독 공부를 제대로 하면 어법공부도 부수적으로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공부이외에도 **기출문제**를 틈틈이 풀어보는 연습을 통해 현재의 실력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4) 한샘 학원 사관영어 Curriculum (수능영어 학습 이외의 사관 영어 과정)

- 1) 1차 과정 : 구문독해 / 어법유형별 연습 (단어, 문장구조, 내용이해의 측면에서 독해를 세밀하게 공부하고, 기본적인 어법내용을 문제를 통해 습득한다)
- 2) 2차 과정 : 중요 독해 유형문제 풀이 / 실전 어법문제 연습 (독해 유형 중에서 빈칸 추론 등 어려운 유형을 집중 공부하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형태와 같은 어법문제를 푼다)
- 3) 3차 과정 : ① 매주 1회 모의고사 시험
 ② 모의고사 풀이
 ③ Final 독해문제 / 어법문제 풀이

[사관학교 영어] 영전T 전두성(서울대학교)

* 전 메가스터디, 등용문

2. 2차 적성평가

1) 자기소개서 작성 및 각종 서류 준비

① 준비 서류

1차 학과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각 사관학교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자기소개서와 신원진술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정해진 부수만큼 우편 접수하여야한다. 3군 사관학교가 모두 같은 것을 요구하나, 육군 사관학교지원자는 거기에 더하여 추천서를 받아야한다. 추천서는 고등학교 담임선생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좋다.

이러한 서류들 중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면접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자기소개서의 작성이다. 특히 각 군 사관학교들이 2차 면접에 대한 우선선발을 확대하는 등 2차 평가를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2차 면접의 기본 자료가 되는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사관학교 자기소개서가 일반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와 크게 다를 바는 없다. 일반 대학 학생은 해당학과에 본인이 적합한 학생임을 어필하고 사관학교의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군장교에 적합한지를 어필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특히 공군사관학교 조종분야를 지원하는 학생이나 간호사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 중에 파일럿이나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위주로 자기소개서를 풀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특수 직업 영역에 대한 적합성과 함께 해당 영역에서 근무하는 '군장교'가 되어야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해야만 면접관들의 눈에 들어오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있어서 평가가 되는 부분에는 '군장교로서의 소양'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를 이룬다. 국가관, 안보관, 성실성, 리더십, 봉사/나눔정신, 장교로서의 꿈의 확고함, 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과정 등이 드러나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하며, 학교생활을 하면서 국가관이나 안보관에 대한 활동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으나, 학교 행사 등에 성실히 참여하고, 무단결석 및 지각이 없으며, 일정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하고, 학생회활동 학급장이나 동아리의 장으로 활동한 경험 등 리더십 활동을 해두는 것이 자소서 작성과 면접에서 도움이 된다. 군에서 진행하는 캠프에 다녀오는 것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②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해야할 점.

- 솔직하게 작성하되, 굳이 불리한 이야기를 밝힐 필요는 없다.
- 분량을 엄수하고, 단어 어휘에 주의하여 격식을 갖출 것.
- 부정적인 표현과 진부한 표현은 피할 것.
- 읽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작성할 것. - 가독성이 좋게.
- 내용이 명료하게 읽히도록 글을 전개 할 것. - 두괄식
- 어필하고자 하는 자질에 대해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나열하기보다는 자신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활동 속에서 느낀 점을 위주로 드러낼 것.
- 긍정적 어투로 자신감과 포부가 드러나도록 쓸 것.
- 혼자서 작성하지 말고, 꼭 선생님 등 타인의 눈으로 점검을 받고 교정할 것.
- 첨삭을 받는 것은 좋으나 반드시 본인 스스로 쓸 것.

③ 각 군 사관학교의 자기소개서의 예

㉠ 육군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의 자시 소개서는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변화 해 왔다. 2015학년도에는 아래의 양식으로 작성되었으나, 2016학년도에는 서류의 형태가 아니라 웹문서의 형태로 작성하였으며, 간단히 숫자를 적거나, 서술이 필요하다 해도, 간단한 단답형 서술에 불과 하였다. 즉, 육군 사관학교는 사전에 작성하는 자기소개서의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 면접의 강화와, 2차 면접 고사 시 작성하는 자기소개서2를 통해 학생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웹에서 작성하는 문항은 2015학년도의 문항과 유사하므로 2015학년도의 자기소개서 예를 첨부한다.

□ 다음은 귀하의 학교생활에 대한 문항입니다.

①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나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세부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 나는 과거에 육사에 지원을 한 적이 있다.(육사 재수 / 3수 지원자이다)
 -응시 횟수 : (1)회, 응시 년도 : 2013년

☑ 나는 사관학교 재지원자(재수 / 3수 지원)이다.(타 사관학교 지원 포함)
 -응시 횟수 : (1)회, 응시 년도 : 2014년
 -응시 사관학교 : 육사(○), 공사(), 해사(),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 나는 육사 ‘고교방문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 나는 육사 ‘초청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4월)

□ 나는 육사 ‘지역별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월 일)

□ 나는 육사 ‘예비지원자 육사 초청입시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월 일)

☑ 나는 고교 시절 학급 반장을 역임했다.
 -반장 역임 횟수 : (3)회
 -언제 :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 나는 고교 시절 학급 부반장을 역임했다
 -부반장 역임 횟수 : (2)회
 -언제 :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학년 ()학기

□ 나는 고교 시절 학생회장을 역임했다
 -구체적 내용 :

□ 나는 고교 시절 학생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구체적 내용 :

나는 고교 시절 학생회 기타 임원을 역임했다

-구체적 내용 :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학급에서의 임원활동을 경험했던 저는 학교 전체 학생과 함께 학교 일을 수행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지하던 회장단이 당선되고 학생회 총무부 차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습니다. 학생회로 선출된 후 선후배가 함께 모여 첫 임무인 신성제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신성제는 안양에서 가장 큰 고등학교축제로 학생들이 직접 계획하고 구성하여 진행하는데 이 때 학생회는 축제 준비 후 정장을 입고 타학교 학생들을 멋지게 맞이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는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생각하고 학생회의 본분을 잊었습니다. 때문에 신성제가 끝난 후 초심을 잃고, 시키는 일 이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 선배들께서 자신들도 1학년 때는 그랬다면서 이제는 학교일을 제대로 할 때가 되었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초심으로 돌아가 총무부 차장이라는 저의 직책에 맞는 회계 관리 및 학생회 상벌점 부과 조항 작성을 통해 학생회 일원들이 더욱 원활하게 맡은 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또한 더 진지한 자세로 명사특강 준비, 이웃 사랑 쌀 나누기, 등교 복장 지도, 여러 가지 캠페인, 건의 사항 수렴 및 회의 요청 등 학교와 학생을 위한 진짜 학생회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고, 학생들이 학생회를 믿고 하나가 되어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힘썼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저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자신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리더가 조직과 함께 서로 조언을 나누고 소통하여 보다 원활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하는 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고교시절 동아리 임원(부회장, 기타 임원)을 역임했다.(온라인 제외)

* 예체능, 문예·학술 동아리 포함

-동아리 구분 : 교내 동아리(), 시·도 단위 동아리(), 전국 단위 동아리()

-동아리 명칭 : ()

-동아리 임원 명칭 : () *예) 부회장

-기간 : () ~ ()

나는 교내·외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도우미 역할을 지원하여 수행한 적이 있다

-구체적 내용 :

저희 고등학교는 우수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학부모 및 신입생 대상 입학설명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올 후배들도 불 겸, 안양시 여러 학교에 직접 찾아가 신성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홍보하였습니다. 그 후 입학설명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후배들과 그들의 학부모님들에게 설명회 장소안내 및 주차 안내를 했습니다. 또한 3년간 학교생활을 하고 떠나는 선배들의 졸업식마다, 자발적으로 졸업식 행사장 준비를 하여 행사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행사 도우미 역할을 하며 작은 일이 큰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우미 역할을 통해 선배들과 후배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서로 간에 끈끈한 정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나는 봉사활동 실적으로 대내외 표창수상 경험이 있다

-수상 횟수 : (2)회

-구체적 내용 :

고등학교 입학 후 고민 되었던 것 중 하나는 어떤 봉사 활동을 해야 주변 소외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나 역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사회봉사를 주목적으로 한 '신성나누리'라는 봉사 동아리를 알게 되어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신성나누리는 경로식당 봉사 및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장애인 교육의 두 가지 활동을 하였는데, 저는 경로식당봉사가 제가 유년시절 다녔던 교회에서 무료 급식을 도와주는 봉사임을 알고, 경로식당 봉사를 선택하였습니다. 봉사를 하며 쇠약하신 분들이 교회에서 무료 급식을 받으러 매주 토요일마다 꾸준히 오시는 것을 보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격주에 2시간씩 인사 및 안내, 급식 배급, 식당 청소, 설거지를 하며 최선을 다해 지역사회 봉사자들의 일손이 되었습니다. 작은 활동이었지만 저에게 큰 의미로 와 닿았기 때문에, 직접 봉사 일지를 매번 작성하여 그것이 교내 봉사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게 되는 행운으로 찾아왔습니다. 또 경로식당 봉사를 통해 노인 분들의 말동무가 되어 드리며 우리사회가 주변 소외된 사람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래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때, 주위뿐 아니라 주변으로도 시선을 돌릴 줄 알며 이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야 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학생부의 추천으로 학교를 대표하여 호국 수련원이라는 리더십 교육 캠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호국 수련원은 경기도의 각 학교별 대표 학생이 참가하여 미래에 한국을 이끌어 나갈 리더로서의 소양을 보이고 키울 수 있는 2박 3일의 캠프였습니다. 이 캠프에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 중 저는 서로가 자신을 소개할 때 소개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캠프에서의 체육대회 준비 및 숙소 정리, 문화재 보호 캠페인에도 자발적으로 참여 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재 보호 활동을 하며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었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 캠프에서 저는 제 활동의 자발성과 솔선수범함을 인정받아 봉사표창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수상을 통해 저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봉사정신이 필요함과 아울러 리더십과 봉사정신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학교 외부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 구체적 내용 :

교육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한 장애우 교육봉사는 2학년이 되서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봉사는 일주일에 한 번, 세 시간씩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 봉사였고, 저는 아이의 국어과목을 담당하였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의 어머니께서는 수업을 공부 반 놀이 반으로 진행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어교과서 소단원씩 수업을 나가며 숙제를 내준 후, 함께 간식을 먹고 닌텐도wii를 하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하고 게임을 즐기는 것을 통해 아이와 더욱 친밀하게 소통하게 되어, 아이의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잘 읽지 못했지만 저와 공부 하면서 아이가 유창하게 잘 읽을 정도로 눈에 보이게 국어 실력이 늘어가는 것이 신기해 아이와 함께하는 때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또한 장애우이지만 우리와 생각하는 방식, 마음 모두 다를 것 하나 없는 같은 사람임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으며,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빠르게 지나갔고 고3은 봉사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배에게 아이교육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봉사 마지막 날 모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 모두 저에게 끊임없이 고맙다는 말을 하였고, 저는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봉사의 기회를 제게 준 모자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참된

봉사란 우월한 내가 열등한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타인과 소통해 나가는 과정임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또는 소규모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 구체적 내용 :
- 외부 단체 확인서 제출

나는 선행 및 가정환경과 관련하여 대내외 표창수상 경험이 있다

- 수상 횟수 : (1)회
- 구체적 내용 :

고등학생 3학년 때는 입시를 앞두고 잦은 시험이나, 원서, 졸업앨범 사진 촬영 등 행사나 일이 많은 바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이 선택한 부반장으로서 솔선하여 교실의 허드렛일을 도맡아 함은 물론, 친구들에게 공부관련 질문이나 조언에도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학업에 몰두했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지만 부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다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더 진실하고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선행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㉔ 공군 사관학교

□ 개인 및 가족 사항

가족소개(자신의 출생 및 성장, 가족분위기 간단히 기술)

저는 원칙과 나눔을 중시하시는 아버지와 가정에 헌신적인 어머니 아래서 어린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가족은 방학이 되면 해외로 여행을 가곤하였습니다. 유럽과 같이 발전된 나라에 간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인도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각국, 중국 등 아직 우리보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곳을 여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고생스럽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방문하는 나라가 늘어갈수록, 그곳에서 보고 느꼈던 것이 많아질수록 저는 제 마음이, 제 시야가 넓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문화를 경험하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었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부모님에게 또 우리나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삶, 세계로 향하는 직업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게는 동생이 2명 있습니다. 제 친동생은 물론이고, 4년 전 굿네이버스를 통해 만난 네팔의 동생도 저는 제 소중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교 생활

고교생활(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경험 포함)

저는 1,2학년 때 각각 학급의 부회장, 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학급의 대표로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리더의 역할이 단지 남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면 가장 낮은 곳에서 굳은 일을 하면서 구성원들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조정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학교 농구대회에서 주장으로써 반이 4강까지 올라가도록 친구들 사이에서 조정하며 노력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동아리는 '비상'이라는 항공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모형비행기를 제작하고, 비행 시뮬레이션도 해보는 등, 공군파일럿을 꿈꾸는 저로서는 제 꿈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관련분야에 대한 조사보고서도 작성해 보는 등 열의를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또한 샤프론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어르신들, 또 장애우분들과 교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 빵을 만들어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간단한 활동이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봉사라고하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지원동기/군인관/인생목표

1. 사관학교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할 줄 알아야한다는 아버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을 여행하며 보다 큰 세계, 그리고 그 세계로 향하는 하늘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일럿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을 때, 어버님께서서는 제게 공군장교의 길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저는 공군파일럿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동문멘토링 행사에서 공군사관학교 출신 선배님께 공군과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꼭 그 선배님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군관련 책을 읽으면서 군인 그리고 장교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하고, 공군사관학교에 방문해보기도 하면서 꿈을 키워왔습니다.

2. 군인으로서의 진로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비전을 기술하십시오.

저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겸손하고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제게 직업이라기보다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예측 불가능하게 급변하며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동북아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의 격전지로 불안한 정세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최첨단 무기체계의 핵심전력으로서 공군력은 한층 더 중요시 될 것이며, 나아가 우주항공 시대의 개막에 발맞춰 공군장교로서 제가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궁무진 할 것 입니다. 저는 최고의 탑건으로써 국토방위의 최일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고, 또 우리나라가 우주시대를 준비하는 데도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3. 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덕목은 무엇인지 그 이유를 기술하십시오.

제 인생의 좌우명은 청렴함과 사랑입니다. 청렴함은 공평한 사회를 이루는 기본 덕목이며, 군인이라는 공인으로써 꼭 갖추어야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마음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교가 평생 같고 닦아야 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면 미더운 부하로써, 존경받는 상관으로써 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청렴하게 살아간다면 저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기타 사항

1. 자신의 장·단점/특기/취미활동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은 모든 일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려하는 마음자세와, 맡은 일을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성실성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헤낼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신중하다보니 가끔은 무엇인가를 결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 저의 단점입니다. 하지만 신중히 숙고하는 만큼, 결정이 흔들리는 일 없이 중심을 잡고, 그 중심이 노력의 기반이 되어주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경험해 왔습니다. 저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구기 종목을 즐겨합니다. 운동 자체가 즐거운 것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친해지는 것도 구기 종목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2. 자신이 사관생도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와 사관생도가 되었을 경우, 성공적인 생도생활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아버님의 조언과 공군장교 출신 선배님의 말씀을 들으며 공군파일럿이 되기로 결심한 뒤에, 저는 군인이라는 사명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평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아픔에 대해서 보고 들으며, 우리의 국력이 약할 때 우리 국민 한명 한명이 겪어내야 했던 고통들에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강한국가를 이루기 위해, 아직도 휴전 중인 채 군사적 긴장 안에서 남북이 대치중인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최일선에서는 군인,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저의 이러한 사명감이야말로 군인에게 꼭 필요한 마음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공군사관생도가 된다면 1학년 때는 신임 있는 후배가 되기 위해 복종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2학년 때는 선배님들의 지시를 따르며, 후배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고학년이 되어서는 임관을 준비하며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배로 저 자신을 수양해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친화력 있게 생도 간 끈끈한 유대관계를 이루도록 노력 할 것이며, 해외 교류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여 대한민국 생도로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군사전략 등의 군 기본 소양을 충실히 익히는 한편, 기계공학을 전공하여 전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나가고 싶습니다.

㉔ 해군 사관학교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저는 전교생이 모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 위주의 학습으로 자기 주도 학습이 많이 부족했던 저에게는 처음 가져보는 많은 양의 자습시간이 참 벅찼습니다. 4시간의 자율학습은 항상 저에게 하루 중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고 만족하지 못할 만한 하루를 보낸 적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저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선생님께 상담을 받기도 하며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생활하였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만의 계획서를 세워 매일 혹은 매주 단위의 계획으로 생활하며 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오랜 기간의 연습 끝에 저에게 가장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사관학교 입시에서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반영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사관학교를 희망하는 아이들을 모아 함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대비, 공부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역사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 강좌를 개설하기도 하였고 먼저 시험에 합격한 선배들을 초청하여 궁금한 점을 여쭙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아이들이 고급 1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적극적인 공부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단순한 암기식으로 공부 하던 방식과는 달리,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답을 구하기 위해 직접 노력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예전의 공부효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효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제가 맞게 될 직무에서도 저는 이런 깨달음을 잘 실천하여 최단기간의 최고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 입시에서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한 다음 날 저는 곰곰이 저의 실패 요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안일한 태도라고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1차 시험을 준비했을 당시 저는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합격선과 저의 기출문제 풀이 점수를 비교하며 “이 정도면 되겠지”하는 생각으로 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시험 성적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탈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 때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2015년이 시작되기도 전에 저는 기숙학원에 입소하여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다짐대로 저는 저 나름의 기준선을 정하지 않고 달려왔으며 그 결과 많은 실력향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꼭 사관학교에 합격하여 더욱 발전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1,500자 이내)

저는 2학년 때 좀 더 다양한 체험을 해보고 싶어 기존의 동아리에서 발명동아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아리에 들어가서 처음 맡은 일은 부원들을 경기도 발명기자단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동아리 부원들의 수상경력과 발명아이디어들을 담은 파일을 부원별로 만들어 세분화 시켜 발명기자단에 응모하였고 그 결과 동아리 부원 전원이 경기도 발명기자단에 발탁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선배들과 부원들에게 신임을 얻게 되어 기획팀장의 자리에 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학기말에 열린 학술세미나에서는 기획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전체적인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날 때가 되어 자신의 진로를 찾게 되었다는 후배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의 동아리활동은 저에게 도전정신의 중

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원래 잘하는 것에서 성과를 내는 것보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성공할 때의 성취감이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도전하는 분야를 확장하면서 저의 능력 또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훗날 해군으로서의 삶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디에서나 성공하는 해군이 되겠다고 다짐도 하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바른생활부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른생활부는 전체 학생회 30명중 13명이 속해 있을 정도로 큰 부서였습니다. 처음 회장단에게 바른생활부장의 직책을 제의 받았을 때는 그런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가 되어 활동한다는 사실이 참 버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에 대한 애교심과 성실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른생활부의 연중 주요 업무는 교내의 질서유지와 학생들의 규칙준수 교육이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저희 스스로의 교복 착용상태와 품행을 바르게 하여 전교생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교복이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교복 교환과 판매를 하여 올바른 교복착용을 장려하고 그 밖의 학교교칙을 알리는 홍보물을 곳곳에 게시하여 학생들이 더 올바른 학교생활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바른생활부의 주요 활동이외에도 저희는 해외 자매학교의 모교방문 당시 레크레이션 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여 자매학교 학생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내상영을 목적으로 한 학교폭력 UCC제작의 총책임을 맡아 배우와 스텝으로 참여하여 전교생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저는 바른생활부장으로서의 1년 동안 리더의 덕목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원들의 기호와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을 배분할 때에는 리더로서 세심함과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대의원회와 학생회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을 진행하고 나서는 리더란 그룹을 이끌면서, 자신을 희생하며 화합을 유도하고, 그 목표달성의 성패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책임감을 보여줄 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생회로서의 활동 중에는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학생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모자 떠주기’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생회 임원들은 직접 이 행사에 참가하였고 더 나아가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직접 제작하여 신청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학기 초부터 순번을 정하여 꾸준히 모금활동을 진행한 결과 연말에는 많은 양의 기부금을 월드비전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체육대회 기간 중 바자회를 열어 모은 수익금을 학교의 독거노인봉사 동아리에 기부 하였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직접 계획하고 진행하며 봉사정신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크고 값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 역시 그런 많은 사람들의 봉사정신과 희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동안 학생회에서 활동했습니다. 5월에 있는 체육대회와 축제를 주관하는 것이 학생회의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는 매년 축제마다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교가 완벽히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 학교의 특성상 인문계와 실업계가 분리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기는커녕 서로간의 갈등만 늘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학생회는 오랫동안 이어오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학생회가 모범이 되어 실업계 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의논하여 모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체육대회에서 시행되는 모든 종목에 인문계와 실업계를 같은 리그에 포함시켜, 스포츠로써 소통하게

하였습니다. 축제에서는 그동안 부진하였던 실업계 동아리의 참여를 장려하여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축제와 체육대회가 끝난 후에는 두 계열 간의 갈등이 줄고 서로간의 대화도 늘어, 진정으로 화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위해 노력하며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란 충분한 대화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갈등상황에서 자기 입장만 내세워 서로를 외면하기 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동아리에서 전국 기계학회 발명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회의 주제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안이었습니다. 저희 팀원 중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해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휠체어의 불편함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휠체어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학생과 현재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불편함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실내용 휠체어와 실외용 휠체어의 차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희는 두 개의 이질적인 휠체어를 모두 합한 신개념 휠체어를 고안하여 설계도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선에 진출해서는 직접 프레젠테이션도 해보고 일부 부품을 만들어 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선에서 장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진행하며, 진정으로 배려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그들의 불편함에 공감하며, 함께 개선책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연민보다는 먼저 다가가 대화도 해보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미래에 주변의 사람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도움도 주며 배려와 나눔의 덕목을 지닌 지휘관이 되어야겠다고 다짐도 하였습니다.

4. 지원동기와 향후 진로계획을 중심으로 본인이 해군사관생도로 선발되어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500자 이내)

평소 공무원이신 아버지를 보고 자란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한때는 경찰의 꿈을 꾸기도 하고 육군의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와서 잠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군사관학교 생도의 모교방문 및 홍보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저는 해군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아덴만 여명작전과 제1연평해전 등의 일을 되돌아보며 대한민국 해군의 희생과 용기를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품고 있던 나의 꿈을 해군으로 정하며 그날 이후부터 단 하루도 다른 꿈을 품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런 저의 결심을 확인하시고 대견하게 생각하시며 저에 대해 아끼지 않는 격려와 지지를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하여 생도가 될 수 있다면 군사전략학과에 진학하여 군사전략전문가로서 해군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평소 군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군사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훗날 제가 세울 필승전략을 위해 전문적인 군사전략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기회가 있다면 직접 구상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모범적인 생도로서 생활하고 부지런히 통솔력을 익혀 4학년 때는 지휘생도가 되고 싶습니다. 전우들을 직접 통솔하고 교육하는 경험은 저의 장교로서의 역량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희생, 지도력 등의 생도로서의 덕목을 배우는데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4년간의 생도 기간이 끝나고 임관을 하게 되면 저는 함정병과에 지원하여 장교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해군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자원하여 국토를 수호하고 싶습니다. 특히 타국에서 우리나라 선박들을 지키기 위해 아덴만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에 지원하여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알리겠습니다. 실전경험을 충분히 습득한 후에는 해군작전사령부에 소속되어 오랜 꿈이었던 해상 군사전략전문가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과거의 실전경험을 통해 전략을 설계한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활용도 높은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급장교가 된 이후에도 저는 항상 생도 1학년의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군으로서의 넘버원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자기 발전하며 최종적으로는 해군작전사령관의 이름으로 경력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는 전국에 있는 학교를 방문하여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첫 실패를 경험한 이후 다시 도전하기 위해 2015학년도 정시 원서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재수할 때는 해군사관학교만을 바라보며 모든 고민과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노력으로 저는 눈에 띄는 발전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만약 해군사관학교 생도가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모두를 놀라게 하겠습니다. 평소, 왜 군이 해군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육군, 공군도 있는데 왜 군이 해군이냐고들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해군이 있으므로 육군, 공군이 활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군은 대한민국 국방의 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군인이라는 직업을 안정적인 직업, 연금 걱정 없는 직업이라고 들 말합니다. 저는 군인은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후회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꽤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해군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을 위해 저는 많은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는 정말 저의 사명을 실현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군사관학교의 생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㉔ 간호 사관학교

□ 인적사항

1. 재학 중 남다른 경험이 있다면(퇴/정학, 해외연수, 교환학생등) 기술하십시오.

□ 재학 중 사항

2. 고교 중퇴경험이 있거나 재수/삼수중이라면 사유와 지금까지의 생활을 기술하십시오.

저는 작년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응시하였습니다. 불합격을 통보받고 울산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진학하였지만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교양과목으로 군사학을 들을 때에도, 친한 오빠들의 군대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만약 작년에 합격했다더라면……’ 이란 생각이 항상 마음 한켠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간호사관학교에 재도전하기 위해 기숙학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관학교에 재도전하고 싶다는 열망은 넘쳤지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모두 뿌리치고 기어코 제 고집대로 재도전하겠다고 부모님 돈 깎아먹으며 그 비싼 기숙학원까지 들어왔는데 성적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고향사람들은 그립고, 살은 찌고, 점점 둔해지는 몸 때문에 더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제 자신이 생각 이상으로 나약한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공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마라톤 도중 어떤 한계지점을 넘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러너스 하이(Runner's High)’ 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1차 시험 당일, 저는 제 공부마라톤의 ‘러너스 하이 (Runner's High)’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며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으니 합격과 불합격을 떠나 더 이상의 후회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이라고 저는 제 소임을 다 끝내고 하늘의 뜻만을 기다렸고 기다림 끝에 ‘1차 시험 합격’ 이라는 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3. 특별활동(봉사활동, 자치활동, 동아리, 연구활동, 아르바이트 등)에서 얻은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수능이 끝나고 4개월간 고급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교육 받은 대로 환하게 웃으며 정중하게 손님을 챙겨드렸을 뿐인데 손님께서 나가시며 “덕분에 편하게 식사하고 갑니다.”, “친절하시네요.” 한마디 던져주시는 게 매우 뿌듯했습니다. 그게 좋아 말도 더 예쁘고 정중하게 하며, 더욱 세심하게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손님께서 좋아해주시니 매니저님께서도 칭찬해주시며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 하였고 그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손님의 편안한 식사를 위해 배려하는 일이 타인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봉사의 즐거움을 알게 해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땀 흘려 돈을 번다는 성취감은 노동의 즐거움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4개월간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간호장교가 되어서 아픈 군인들을 간호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들에게 심리적인 편안함을 제공하여 회복에 도움을 주고, 땀 흘려 얻은 성취감이 즐겁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학생회 임원활동은 어느 시기에 어떤 위치였는지도 함께 쓰십시오)

고3, '살면서 학창시절에 반장 한번쯤은 해 보는 게 인생 아니겠냐.' 는 생각에 반장선거에 나갔고 운 좋게 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막상 반장으로 선출되고 나니 어릴 때 골목대장이나 중학교 때 부반장을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 행동 하나하나가 반을 대표하고 반 전체의 잘못은 항상 제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저희 반은 개성이 강한 아이들의 집합소라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경고도 자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분위기로는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고 두 가지 전략을 짰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자습분위기를 사수하기로 했습니다. 수능을 1년 앞둔 고3 교실에서 자습분위기는 대학 진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반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습시간, 떠드는 아이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과 '공부'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였고, 마침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끌어안아 함께 공부하는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분위기는 1년 동안 지속되어 3월 이과반 풀등에서 10월 마지막 모의고사 이과반 1등이라는 성적 향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서의 공부가 더 효과적이므로 환경미화와 청소에 힘썼습니다. 출선수범하여 청소시간에 제일 먼저 나가 청소를 하고 청소 안하는 친구들의 청소구역도 묵묵히 청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저의 행동이 반 아이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성실하게 청소하다보니 반 아이들도 따라서 청소하고 미안해서라도 자기 맡은 구역 청소만은 확실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3학년 환경미화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8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들을 이끌어아가는 데에도 전력이 필요하였습니다. 한 그룹의 리더라는 자리가 얼마나 큰 포용력과 성실함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학창시절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준 분, 또는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기술하십시오.

'인생은 독고다이(獨固多異)다.' 고등학생 때, 저의 모토였습니다.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제 갈 길만 가는 저에게 '네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란 건 결국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고 아무리 홀로 뛰어나도 주위에 사람이 없는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그러니 주위에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들에게 잘 하도록 하여라.' 라고 조언해주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의 조언을 들은 뒤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가 여태껏 쌓아온 것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도움을 주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제 곁에 있는 이들로 인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조언으로 주위 사람들이 제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큰 재산이 될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고, 그들에게 받은 것처럼 저도 그들의 힘이 되고 봉사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 기타사항

1.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포함해 자기소개를 해 보십시오.

과격한 운동이나 짐 나르기 같은 단순 노동에서부터 그림그리기와 피아노 연주 등 섬세한 기술이 요구되는 활동까지, 대체적으로 신체를 사용하는 일은 곧잘 하는 편입니다. 제 단점은 다소 FM(Field Manual)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신호등의 파란불이 깜빡일 때 뛰어갈 법도 한데, 뛰어가는 친구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너가 가끔 친구들에게 야유를 받기도 합니다. 저의 이런 장단점으로 군사훈련과 간호업무 같은 신체적 기술을 요하는 일은 향상시키고 원칙적인 선 아래에서 좀 더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부하들을 어우르는 리더가 된다면,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 귀감이 되는 포용력 있는 장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지원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꿈은 의료직에 종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며 보람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해 동경을 품고 있었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알기 전에는 의료 관련 대학에 진학한 뒤 학업을 잠시 미루고 몇 년 동안 군대에 다녀오려고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고3 초, 간호사관학교생도의 교내입시설명회에 참여함으로써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때 간호장교가 의료직에 종사하고 싶은 저의 꿈과 군대에 대한 동경의 합일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대학교의 의료관련학과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사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보다 더 많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는 곧 '국가'를 위하여 라는 사명감을 갖게 하였고,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서비스'는 단지 손님을 접대하는 데에서만 발휘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간호장교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배운 서비스정신은 장병을 간호해야 하는 간호장교 업무에서도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면접

① 육군사관학교

사관학교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대학은 육군사관학교이다. 육군사관학교는 2015학년도 우선선발 전형의 신설과 더불어, 2016학년도에는 추천전형을 신설하였다. 이는, 한마디로 면접 및 체력 평가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입력하며, 자기소개서의 양식을 비롯하여 면접의 방식이 변화하였다.

㉠ 자기소개서2 작성

2015학년도의 2차 적성 평가 응시 시 작성하는 자기소개서는, 특별한 활동을 한 학생만이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우선선발에 있어, 기본소양이 좀 더 우수한 학생을 미리 선별하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2016학년도에는 자칫 스펙을 위주로 미리 학생을 선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2015학년도의 자기소개서를 대폭 축소하여, 웹에서 간단한 사항에 단답형으로만 답변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학생의 면접을 원활하게 진행하기는 힘들다. 육군사관학교는 지원 동기나 가족관계 등의 일반적인 내용의 자기소개서를 2차 시험 입소 후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자기소개서2라 한다. 침삭이나 교정을 받지 못하고 바로 작성하게 때문에 좀 더 진솔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어, 학생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소개서2의 내용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동아리활동, 가족관계, 지원동기, 병영체험 경험, 취미와 특기, 선생님이나 교우들과의 관계, 사관생도로서의 향후 학업계획 등이 있다.

㉡ 집단토론

조별로 주제를 통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대해 찬/반 입장으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는 면접 형식이다. 4명의 면접관이 임회하며, 토론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제를 바꾸거나, 추가 질문을 하는 등, 토론과정에 개입하기도 한다. 출제되는 주제영역은 광범위하다. 한국사에 관련된 문제나, 시사적인 이슈들, 기본적인 인문학적 문제들, 안보 현실에 연관된 문제들 등 다양하다.

이 모든 주제영역을 평소에 준비하고 있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해당 해에 크게 이슈가 된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해보는 것이 좋다. 어려운 주제가 나와 지원자들이 모두 토론에 원활히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주제를 바꾸어 참여하도록 유도하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토론 참여시 토론자로서의 일반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답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보는 것이므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 있게 펼치는 한 편, 타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타인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

토론에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토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지적수준이나 발표력, 토론을 이끌어가는 리더쉽과 적극성,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사회성, 협동력 등을 평가하고자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이 영역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로는 광역버스 입석금지 법안에 대한 찬반, 안락사 인정여부에 대한 찬반, 교실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찬반, 사형제에 대한 찬반 등이 있다.

㉔ 구술면접

약술시험은 지원자의 표현능력과 논리력, 가치관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일반 대학의 논술 시험과 유사하다. 주제영역은 집단토론과 마찬가지로 다양하지만, 국가관이나 군인정신, 역사관 등 지원생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영역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주제에 대한 복수의 제시문을 준 뒤, 이를 요약(400자)하고, 자기생각을 기술(600자)하도록 요구한다. 글을 써본 경험이 없는 학생이나, 독해 능력이 부족하여 주제영역이 무엇인지 파악이 잘되지 않는 학생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구술시험은 약술시험에 대한 보강으로 이루어진다. 면접관은 지원자의 구술시험 답안지를 보고, 지원자에게 약술시험에서 쓴 내용에 대해 말로 요약해 볼 것을 요구한다. 요약이 끝나면, 지원자의 답안작성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하거나 그와 연관된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가치관을 평가한다는 것은 지원자의 생각이 군에서 요구하는 생각과 일치하는가를 평가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 군과 국가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안을 답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출제되었던 문제를 예로 들어보면, 약술에서 북한의 실상과 정치 체계에 대한 지문, 우리나라의 정치체계에 대한 지문을 주고, 그 안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한 이유’라는 주제영역을 파악해내는 문제가 출제 되었다. 그에 대한 구술시험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먼저 출현하였고, 그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공산주의인데, 그렇다면 공산주의가 더 우월한 것이 아닌가?”, “공산사상을 가진 집단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한가?”, “한국이 미국동맹을 유지해야하는가? 독립적으로 행동해야하는가?” 등의 추가질문이 나왔다.

그밖에 군사적 역량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 병역기피 현상에 대한 생각, 군조직의 특성과 관심병사 관리에 대한 견해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㉕ 학교생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면접관이 질문하는 것이 기본이나, 꼭 그렇게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봉사 영역이나, 수상경력,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해 질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작년 면접에서는 “읽은 책은 생각나는 대로 전부 말해 볼 것.” “가장 친한 친구와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말해 볼 것.”과 같이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묻기도 하였다.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얼버무리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군인다워 보일 수 있다. 결석이 많다거나, 학교 내신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는 이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생각해 두고 면접에 임해야한다.

㉖ 자기소개서2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하는 질의와 큰 차이는 없다. 2차 시험 입소 시 작성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분과와 겹치는 질문도 많다. 리더십 관련활동, 봉사활동, 성격의 장단점, 지원동기, 입학의지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룬다.

㉞ 발성, 태도, 자세, 용모

군장교로서의 외적요인에 대해서 점검하는 분과이다. 지난해에는 간단한 제식을 시켜보는 것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된 것이 특징이었다. 뉴스 기사 읽기, 발음이 어려운 문장 읽기를 통해 목소리의 크기나 발음의 정확성을 평가하였고, 간단히 행동 요령을 숙지시킨 후 경례와 제자리 달리기를 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㉟ 심리검사

지원생은 1000여 문제에 달하는 심리검사 문항을 짧은 시간에 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면접을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심리검사가 문제가 되어서 탈락하는 경우는 없고, 면접관들이 질의하는 내용도, 일반적인 내용이 많다. 성격에 대한 질문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며, 지원동기 등에 대해서 묻기도 한다.

㊱ 준장과의 대화

마지막으로 준장과의 면담을 실시한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진행되며, 면접관이 농담조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덕담을 건네기도 한다. “같은 학교 출신의 육군사관학교 선배가 있는가?” “합격하면 다른 학교 정시를 지원할 것인가?”, “지원동기는?” “가족관계는?” 등의 질문을 한다.

② 공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는 다른 학교보다도 1년 먼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을 가산점 적용의 형태로 반영하고, 최초로 우선선발을 시작하는 등 사관학교 중에서도 공격적인 입시전략을 구사하는 학교이다. 2016학년도에는 조종 분야의 2차 우선선발 합격인원을 70%로 늘렸다. 모집요강 상에는 4개의 분과로 나누어 평가한다고 되어 있지만, 질문의 내용이 각 분과에서 평가하고자하는 장교의 품성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분과 간을 넘나드는 질문이 이루어진다.

㉠ 입소일 자기소개

공군사관학교는 입소 첫날, 전체 지원생들과 면접관들이 강당에 집합하여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도록 한다. 이 시간에 지원생들은 이름이나,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정생활, 부모님 직업, 부모님의 사관 지 지여부, 자신의 장담점, 성격, 취미나 특기 등을 위주로 자신을 표현하고 어필 할 수 있다. 하나의 분과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원생의 발표력과 리더로서의 역량을 살필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기회이다.

㉡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

<1분과>인 성격, 가치관 희생정신 평가와, <2분과>인 학교생활, 가정환경, 지원동기 평가에서 자기 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 성장 및 가정환경, 고등학교 성적이나 출결 상황, 봉사활동, 리더십 활동 등의 분야에 대한 질문 등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끔은 시사 이슈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 상에 보이는 자신의 약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생각해 두고 들어가야 한다.

실제 이 분과에서 나온 질문들의 예를 들면,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데 자신감의 모토는 무엇이나?”, “1박2일간 사관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관생도들을 본 느낌은 어떠한가?”, “조종 분야에만 관심이 있는가? 조종분야가 아니라면 어떤 분야의 장교가 되고 싶은가?”, “대한민국에 고칠 점이 있는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가?”, “중국과 일본의 반한 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이 있다.

㉢ 역사(안보관)논술 & 주제토론

역사(안보관)논술은 육군사관학교의 약술 시험과 유사하다. 육군 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주제 영역은 다양한 편이나, 주로 역사관이나 군인관, 국가관을 주제로 수험생의 가치관과 논증력, 표현력 등을 평가한다. 논술의 배점은 0~10점까지 배분되며,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논술을 잘 작성한 학생은, 실질적으로 5~10점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아야한다. 문제는 1문항이 출제되고 3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주제토론은 주제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발표하고, 발표된 의견들에 대해 서로 반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박이 끝나면 마무리 과정으로 결론을 이끌어 낸다. 육군사관학교의 구술시험과 마찬가지로, 지원자의 가치관이나, 논증력, 발표력 이외에 사회성이나 배려심 같은 요소도 확인, 평가되므로, 토론의 물을 잘 지키면서 면접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제된 문제의 예로는 동북공정을 포함한 중국의 소수민족 역사 편입 사례를 제시하고, 중국의 통합적 민족 사관을 예시를 들어 비판하라는 문제, 고종황제를 우유부단한 지도자로 묘사하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글을 제시하고, 이를 비판하는 문제 등이 있다. 주제토론이 끝난 후에, 짧게 장교로서의 용모와 발성 등을 연이어 평가하였다.

③ 해군사관학교

2015학년도에 학교장 추천 전형(특별전형)을 신설하여, 정원의 10%를 선발하였으나,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보다는 변화의 폭이 작았으나, 2016학년도에는 특별전형을 정원의 20%로 확대하였다. 자기소개서나 면접 방식은 예년과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 다만 특별전형 대상자에 들은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면접의 영향력을 강화시켰고, 특별 전형을 비롯한 전 전형의 면접고사에서 역사관 분야의 평가가 강화되었다.

㉠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

사관학교 지원자가 가져야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평가하는 분과로 주요 한국사의 이슈들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한국사의 기본적인 상식 수준의 질문이 나올 수 있으며, 역사인식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도 한다. 주적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지 평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기도 한다. 한미 동맹에 대한 생각과 해군이 가지는 중요성,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역시 이 영역 질의 중 한 분야이다. 해당 년의 시사 이슈에 대해 묻는 경우도 있어 주제 영역은 넓다.

“우리 역사 중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하는 이유는?”, “6.25 전쟁의 전개는?”, “1,2차 연평해전에 대해 알고 있는가?”, “우리 군의 주먹은?”, “우리군의 목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등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다.

㉡ 적응력

주로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가지고 지원자에 질의한다. 성장과정이나 가정환경, 학교생활의 충실도, 학업에 대한 충실도, 리더십 활동과 그 활동 안에서 느낀 점, 봉사활동과 주변에 대한 이해, 군인이 되려는 이유, 해군 장교가 되고 싶은 이유 등이 이 분과의 주요 평가 항목이다.

“사관생도가 된다면 어떻게 생도시절을 보낼 계획인가?”, “본인 성격의 장단점은?”, “해군 사관학교를 지원한 이유는?”, “본인이 해군 장교로서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학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반장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봉사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등과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다.

㉢ 주제토론

육군사관학교의 구술이나, 공군사관학교의 주제토론과 같은 분야로, 10여명의 지원생이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찬반으로 갈려 자신이 속한 입장을 옹호하는 면접형태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육군사관학교의 구술이나 공군사관학교의 주제 토론과 같고, 평가하고자 하는 영역 역시 같다. 한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학생의 수준에서 생각해 낼 수 있는 답변은 유사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먼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토론 시간을 너무 많이 쓰거나 주변의 토론자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며, 논리적으로 말을 이어나가야 한다.

주제토론 문제의 예로는 ‘공자와 한비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사상을 옹호’하기, ‘여성의 군 진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장단점’, ‘한미 전시 작전권 이양에 대한 찬반’ 등이 있다.

㉔ 군인 기본자세

군 장교로서의 신체 자세나 용모의 단정함, 발성, 표현에서 보이는 리더로서의 자질 등을 평가하는 분야로 주제 토론 등 다른 면접분과에서 면접관에게 보이는 모습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㉕ 종합 판정

육군사관학교의 준장과의 면접이나 공군사관학교의 위원장 면접과 유사한 분과로, 지원자의 순발력과 창의력, 인성 및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의 적응력, 군인으로서의 자질, 표현능력과 개성을 평가한다.

해군사관학교에 잘 융합할 수 있는 인재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주요 평가 요소이다. 상황에 따라 답소를 나누는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 공동체 생활에 대한 생각, 장교 임관 시 선택하고 싶은 복무 분야, 때로는 시사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한다.

④ 간호 사관학교

간호 사관학교는 입시에서 가장 변화가 적은 학교였다.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비롯하여, 입시 전반이 예년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내적 영역, 대인 영역, 외적영역/역사관 평가의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각 분과에서 묻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며 중첩되는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다만 간호사가 아니라 군 간호장교로서의 국가관과 같은 장교 기본 소양, 의료인을 뽑는 만큼, 봉사정신이나 직업인으로서의 기본 인성 소양에 대한 질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 내적영역 평가

내적 영역은 지원자의 성장환경과 지원동기, 장교로서의 품성, 리더십이나 나눔의 정신 등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다양한 질문을 하며, 장교로서의 품성 뿐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일반 사회에서는 살인이 금기 사항인데, 군대에서 전시에 살인이 허용되는 것은 정당한가?”, “본인 성격의 장단점을 말해보라”, “간호사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간호사관학교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간호 장교가 일반 전투 분과의 장교와 다른 점이 있는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혹은 본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누구인가”, “좌우명이나 있는가?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좌우명으로 삼았는가?”, “결석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군에서 발생하는 자살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이 이 영역에서 나올 수 있다.

㉡ 대인 영역 평가

대인 영역은 지원자의 사회성과 협동심, 단체 생활에서의 적응력 등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내적 영역과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가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별명이 무엇인가? 왜 그런 별명을 얻었는가?”, “그 동안 해왔던 봉사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봉사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인가?”, “왕따를 당하는 학생을 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본인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가족 관계는 어떠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 중 누구와 상의하는가?” “동아리장이나 반장 등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가?, 그를 통해 느낀 점이 있는가?”,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적군의 중상병과 아군의 경상병 중 누구를 먼저 치료할 것인가?” 등의 질문이 이 영역에서 나올 수 있다.

㉢ 외적영역 평가

군인으로서,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용모, 품행, 역사 인식에 대해서 평가하는 영역이다. 육군사관학교의 발성, 자세, 용모 분과나 해군사관학교의 군 기본자세와 같은 영역을 평가하고, 주의 사항도 같다. 평가 당시 뿐 아니라, 면접을 통해서 면접관들에게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⑤ 면접 시 주의 할 점

-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할 것.**
 - 두발이나, 복장에 신경 쓸 것.
-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 할 것**
 - 설 때는 차렷 자세로 발을 모으고 무릎을 붙이도록 노력할 것.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어 몸에 붙일 것.
 - 앉을 때는 등받이에 허리를 세워 붙이고 발을 모아 앉을 것.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어 무릎에 놓을 것.
 - 면접 중 몸을 흔들거나, 긴장으로 경직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간단한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은 안정감을 주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 **인사 등 기본 예의에 유의할 것.**
 - 면접장 입장/ 퇴장 시 고개 숙여 큰소리로 인사할 것.
 - 면접관이 앉기 전에 착석하지 말 것.
 -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가져가지 말 것.
- **시선을 바닥으로 향하거나 허공을 바라보지 말 것.**
 - 질문을 한 면접관을 바라보며 대답하고, 두리번거리지 말 것.
- **답변은 크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할 것.**
 - '해요'체 보다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할 것.
 - 습관화된 말버릇이나 추임새 등을 확인하고 교정할 것.
 - 부정어 보다는 긍정어를 위주로 사용할 것.
- **자기소개서 내용과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숙지하고 면접에 임할 것.**
 -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모순되는 대답은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기록되지 않은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어려운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할 것.**
 - 모르는 것은 모른다. 부족한 것은 지금은 학생이라 부족하지만, 생도가 되면 노력하겠다고 솔직, 당당하게 대응할 것.
 - 불리한 내용의 질문에는 간략하게 답변하여 그 주제로 대화가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신체검사 & 체력 검정

평범한 체격을 가진 학생이라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키가 좀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몸무게가 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오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신체검사를 가장 면밀히 실시하는 학교는 공군사관학교인데, 조종 분과에서 가장 강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이 저시력을 이유로, 고민하는데, PRK와 같은 시력 교정술로 정상 시력 회복이 가능한 학생이라면 조건부로 입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력 조건에 대한 부담이 완화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꼭 유의해야 할 것은 공군사관학교에 시험을 치루기 전, 혹은 입학하기 전에 시력 교정술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충치의 여부, 수술 흉터, 비중격만곡증 등 공군사관학교 신체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 이들 사안에 대해 신체검사 시 문제가 되지 않거나, 조건부 입학이 가능할지의 여부는 공군사관학교에 직접 개인의 상황을 문의해 보거나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다만 전문의가 큰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 할지라도, 공군사관학교 신체검사 당일엔 부적합 판정이 날 수도 있으니 유의하자.

체력검정은 공통과목도 있지만, 각 군 사관학교에서 다른 과목을 보는 것도 있으므로, 지원한 사관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과목과, 시험 요령을 잘 숙지하고 연습하는 것이 좋다. 체력검정에 배분된 배점은 사관학교별로 30~50점에 달한다. 특히 체력검정에서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다른 평가 요인들과 상관없이 체력만으로 불합격판정을 받기도 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공부하는 중간 중간 달리기나, 줄넘기 등을 통해서 기초체력을 형성하는 데에 주력하고, 1차 시험 결과가 나온 뒤에 해당 과목의 스킬을 집중적으로 연습해 나가도 늦지는 않다. 공부 중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가 어렵다면, 방안에서 일정 높이의 발판을 두고, 계단을 오르내리듯,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며 연습해 보는 것도 좋다.

각 군 사관학교 공통과목인 윗몸 일으키기나, 팔굽혀 펴기와 같은 과목은 정확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감독관이 카운트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사관학교의 '바른 자세'를 참조하여 연습하도록 하고, 연습에도 자세가 교정되지 않으면 본인이 해당 과목을 연습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보고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것이 좋다.

체력검정 파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육군 사관학교의 우선선발이다. 육군 사관학교에 우선 선발된 학생 중 많은 학생이 체력검정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4) 한국사 관련.

2016학년도 각 군 사관학교는 입시전형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가산점의 형태로 반영했다. 하지만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 과목이 수능의 필수 과목이 됨에 따라 별도의 시험인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응시할 필요성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각 사관학교들의 한국사 반영 방법에 대한 요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나, 수능 한국사의 반영 방법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한국사 시험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획득한 학생들에게 사관 응시 및 평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형**’이 있다. 다른 서울 소재의 명문 대학들은 현재 한국사 시험 3등급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시험의 특성상 이는 그리 어려운 조건은 아니다. 각 군 사관학교들도 3등급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국사를 반영할 수 있다.

다음은 현재의 제도인 가산점 제도를 그대로 수능 한국사 시험에 적용하는 ‘**가산점형**’이다. 수능 한국사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일정한 점수를 가산점으로 설정하여, 해당 등급의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가산점의 상한은 재설정 될 수 있으나, 2016학년도의 경우 공사가 20점, 해사가 10점, 간사가 4점, 육사가 3점을 부여했었다.

다음은 가산점형과 자격형을 함께 사용하는 ‘**혼합형**’이 있다. 일정 등급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넘는 학생들에게 성취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한국사 시험 3~4등급 정도를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고 1등급부터 가산점을 차등부여하기 때문에 한국사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수능 한국사의 반영 방식이 어떤 형태가 되던, 별도의 과목을 하나 더 학습해야 했던 2015, 2016학년도와 달리, 한국사가 수능의 과목으로 이미 지정된 과목이라는 점에서, 사관 응시생들의 상대적인 학습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 능력시험 고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능 한국사의 출제 난이도가 한국사 능력 시험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지도 않는다.

다만, 사관학교의 한국사 반영 방식에 있어서 유의해서 지켜봐야 할 것은, 우선선발 대상자에 대한 한국사 능력 검증의 방법이다. 기존에 2차 면접 이전에 검증이 이루어지던 한국사 능력이 수능 시점까지 보류됨에 따라, 각 사관학교의 우선 선발 대상자의 경우, 한국사 능력 검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맹점이 있는 것이다. 각 군 사관학교는 지난 2년간 한국사와 국가관 관련 면접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기 때문에 면접을 통한 검증을 강화할 수도 있고, 우선 선발 대상자 일지라도 수능 한국사를 무조건 응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

사관학교 입학 전형이 확정, 발표되는 3월 중하순 경에 각 군 사관학교의 한국사 관련 정책을 주목해서 보고, 각 사관학교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야겠다.

사관학교를 지망하며,
공부에, 체력단련에, 전략수립에 노력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마음 졸이며 그들을 응원하고 지켜보시는
많은 부모님들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 광릉한샘기숙학원 사관전문반